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댄스스포츠에 관한
대중예술로의 가치와 방안

2022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연예술전공
이 수 현

댄스스포츠에 관한
대중예술로서의 가치와 방안

김 미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연예술전공
이 수 현

인 준 서

이수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05월

심사위원장 _____ 임 영 희



심사위원 _____ 김 은 혜



심사위원 _____ 김 미 숙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개요

대중문화 예술 산업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대중들도 풍요로운 삶의 질에 향상을 위한 관심도와 문화생활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무용분야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무용예술분야는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지만 대중화는 무용예술이 갖는 중요한 숙제라 할 수 있다.

‘무용의 대중화’는 대중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폭넓게 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무용을 보다 친숙하도록 만들어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라틴댄스 또한 대중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매개체로 TV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다른 분야의 장르들과 공연을 마련하여 대중예술로서 타 분야와 다양하게 융합하며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보다 쉽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무용예술임을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무용예술의 대중화는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예술분야 중 현저하게 더딘 대중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틴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분야별로 대중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색하고 가치를 크게 사회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교육적 가치, 신체적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가치를 통합한 대중적 가치로 나누어 연구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 번째, 라틴댄스의 사회문화적 가치로는 상호간의 배려와 파트너와의 호흡, 의사소통, 소속감, 리더십, 인내, 협동심, 책임감, 예의 등 질서와 타인에 대한 인격존중 등의 가치를 들 수 있으며 나이와 성별의 상관없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춤 문화이며, 서로간의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춤으로 요

즘 시대에 필요한 매너와 사회성을 함양한다.

두 번째, 예술적 가치로는 다양한 음악과 리듬에 맞춰 다양한 동작과 기술로 구성을 실제적 움직임에 연결하며 동작들이 기능적이고 신체의 아름다운 선과 공간미를 창출하는 공간적 움직임 예술이다.

세 번째, 교육적 가치로는 신체를 통해 음악에 맞춰 예술을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미적 가치를 정서적인 표현하며 협동력과 자기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성발휘 및 개발시켜주며, 작품을 직접적으로 창작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와 창조적 행동을 유발시켜 표현의 탐구력과 상상력을 증진 키워준다.

네 번째, 신체적 가치로는 댄스와 스포츠를 혼합한 스포츠 장르로 운동역학적 측면에서 평형성을 길러 주는데 적합하며, 활발한 대 근육 활동으로 지구력과 근력, 유연성을 발달시켜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빠른 리듬감으로 심폐기능의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

다섯 번째, 대중적 가치로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희성,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는 참여성, 그리고 사람들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회성이라는 대중적 특징, 또한 화려한 의상과 경쾌한 음악, 현란한 동작, 특이한 연출들로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인기를 끌며 TV프로그램과 SNS를 통한 라틴댄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와 인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다른 춤 장르와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하며 라틴 코레오(Latin Choreo)라는 하나의 장르를 창작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라틴댄스의 내재된 가치를 나누어 탐색하며 라틴댄스의 내재된 가치들을 통해 대중문화예술로서의 대중적 가치를 발견하였고, 라틴댄스의 대중문화예술로서의 앞으로의 대중적으로 발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제한점	5
4.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8
1. 라틴댄스 개념 및 특성	8
1) 라틴댄스의 개념	8
2) 라틴댄스의 특성	10
2. 대중예술의 정의 및 특성	27
1) 대중예술의 정의	27
2) 대중예술의 특성	29
III. 장르별 대중예술의 개념과 특성	31
1. 팝아트	31
2. 대중영화	32
3. 대중무용	34
4. 대중음악	36

IV. 라틴댄스에 내재된 가치와 대중적 특성	39
1. 라틴댄스에 내재된 가치	39
1) 사회문화적 가치	39
2) 예술적 가치	40
3) 교육적 가치	42
4) 신체적 가치	43
2. 라틴댄스의 대중적 특성과 가치	45
1) 대중적 특성	45
2) 대중적 가치	48
3. 대중예술로서의 발전방안	51
V. 결론 및 제언	58
1. 결론	58
2. 제언	62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라틴댄스 5종목 특성	13
표 2.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51

그림 목 차

그림 1. Dorin Frecautanu & Marina	16
그림 2. Michal Malitowski & Joanna Leunis	16
그림 3. EugeneKatsevman & Maria manusova	18
그림 4. Riccardococchi & YuliaZagoruychenko	21
그림 5. Sergey Sourkov & Agnieszka Melnicka	23
그림 6. Stefano DI Filippo & Daria ChesnoKova	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며, 대중사회이다. 정보화 시대에 대중예술이 문화산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대중예술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한혜주, 2020). 대중문화 예술 산업은 한류를 탄생시킨 주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무용분야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모든 순수예술 장르는 대중화 작업 즉, 순수예술산업에 힘을 쏟고 있다(황세란, 2009). 대중예술의 개방적인 마케팅으로 TV, UCC, SNS, 온라인 서비스 등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라틴댄스의 소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틴댄스의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며 과거의 사교댄스가 아닌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가치들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라틴댄스는 어려운 춤, 낯선 춤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여러 가지 가치고찰을 통해 대중화를 모색하여 대중들에게 가치들을 인정받아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틴댄스의 가치는 크게 사회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교육적 가치, 신체적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가치를 통합한 대중예술로서의 대중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 문화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측면에서 라틴댄스는 상호간의 배려와 호흡, 의사소통, 소속감, 리더쉽, 인내, 협동심, 책임감, 예의 등 질서와 타인에 대한 인격존중 등의 가치로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향유할 수 있는 춤 문화이고, 상호간의 호흡과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춤으로 요즘 시대에 필요한 매너와 사람 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회성을 함양한다.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건

강을 유지시켜 주며, 라틴댄스를 통해 움직임의 표현으로 내재 된 정서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고 표출 할 수 있다. 또한, 창작안무를 통해서 자신의 개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에 대한 지혜를 터득 할 수 있다.

둘째, 예술적 가치로는 라틴댄스는 다양한 음악과 리듬에 맞춰 다양한 동작과 기술로 구성을 실제적 움직임으로써 연결하며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선과 공간미를 창출하는 공간적 움직임 예술이다.

사람의 움직임을 전제로 하며 움직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상징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세련되게 가공하고 변화시켜 끌어내기도 하고 확대하고 과장하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면서 무용의 예술성을 만들어가며(윤덕경, 2000), 움직임과 함께 풍부한 감정 표현과 표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표현 예술로 다양한 형식과 연출로 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깊은 감흥을 전달한다.

셋째, 교육적 가치로는 협동력과 자기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성을 발휘 및 개발 시켜주며,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창조적인 사고와 행동을 유발시켜 표현의 탐구력과 상상력을 키워준다. 더구나 음악에 맞추어 신체를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미적 가치를 정서적으로 표현하여 예술적 심미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으로도 가치가 있다(백경진·김영인 2008).

넷째, 신체적 가치로는 라틴댄스는 댄스와 스포츠를 혼합한 스포츠 장르로 동작과 기술은 주로 전진과 후진, 회전으로 구성되며, 남녀가 춤을 출 때 각자 자기중심을 잡고 평형을 유지하는데 공간상 운동 중심축을 함께 이동하므로, 운동역학적 측면에서 평형성을 길러 주는데 적합하다.

활발한 대 근육 활동으로 지구력과 근력, 유연성을 발달시켜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빠른 리듬감으로 심폐기능의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다섯째, 라틴댄스의 대중적 가치로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희성,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는 참여성, 그리고 사람 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

회성이라는 대중적 특징을 지니고(이채원, 2011), 민중들의 춤으로 직접적으로 배우고 참여하면서 참여욕구가 증대되었고, 대중화, 민중화되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나아가 공연 형태로 발달되었다. 순수예술의 반대편에 대중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오늘날 라틴댄스의 많은 관객들에게 배움에 대한 동기유발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화려한 의상과 경쾌한 음악, 현란한 동작들로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인기를 끌며 라틴댄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우명희, 2008).

라틴댄스는 <무한도전>, <댄싱 위드 더 스타>, <댄싱 9>, <변 더 플로 위>, <스트릿우먼 파이터> 등 많은 방송 프로그램과 다른 분야의 춤 장르와 공연을 마련하며 대중들의 인기에 힘입어 대중예술로서 타 분야와 다양하게 융합되고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예술성과, 정통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창작요소를 개발하여 새롭게 재창조화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을 함축해 보았을 때 라틴댄스는 대중예술로서의 가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춤으로나, 대중과 함께하는 공연예술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생리학적 현상으로 본 운동효과에 관한 연구(정미송, 2004; 백순기, 2006; 문희경, 2013; 정희진, 2016),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황승희, 2003; 김수정, 2004; 조수정, 2006; 김소연, 2009; 김영화, 2010; 송혜리, 2019)등 많은 논문들이 연구되어져 왔지만 이들은 주로 운동생리학적 현상에서 운동학이나 측정 또는 여가활동에 관한 여가생활 만족도 조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적인 연구로는 라틴댄스를 다방면으로 이해하고 공연 예술로서나 대중예술로서 승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운동학과 스포츠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이러한 가치들을 종합해 분석해 보았을 때 라틴댄스는 스포츠 운동뿐만 아니라 무용 요소와

예술성, 대중성이 비교적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시대에 일반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친밀감 있게 접할 수 있는 라틴댄스 안에서 대중화요소를 찾는 작업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라틴댄스의 내재되어 있는 대중예술로서의 가치 고찰을 통해 라틴댄스가 대중사회에서 가지는 역할 및 가치를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대중문화예술로서의 발전방안에 관해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과 관련된 국내 학위논문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저널, 학회지, 단행본, 인터넷 및 예술 관련 서적 및 사이트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직접 공연을 관람 또는 관련 사이트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라틴댄스에서 나타나는 가치들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라틴댄스의 내재된 대중예술성과 대중문화예술로서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하여 라틴댄스의 개념과 라틴댄스의 특성, 대중예술의 개념과 대중예술의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위에 연구를 토대로 라틴댄스의 가치를 크게 사회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교육적 가치, 신체적 가치, 대중적 가치로 나누어 대중문화예술로서의 가치를 탐색 하고자 한다.

셋째, 대중예술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제시한 라틴댄스의 다섯 가지 가치를 통합하여 대중예술로서의 방향성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댄스스포츠는 크게 라틴댄스(Latin Dance)와 스탠더드댄스(Standard Dance)로 분류할 수 있으며 라틴댄스의 룸바, 삼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5종목으로만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둘째, 라틴댄스의 가치를 밝힐 수 있는 가치 범주로서 사회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교육적 가치, 신체적 가치, 대중예술로서의 대중적 가치로만 나누어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4. 용어의 정리

1) 라틴댄스

현재 라틴댄스는 국제경기대회의 공식적으로 5종목으로 채택된 삼바(Samba), 차차차(Cha Cha Cha), 룸바(Rumba), 파소도블레(Paso Double), 자이브(Jive)를 말하며 5가지의 종목은 각 종목마다 다른 다양한 스텝과 용어, 기술, 리듬, 템포 등을 세계적으로 통일 시켰다(이용탄, 2020).

2) 대중예술

대중예술은 특별한 노력이나 의식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하고 유치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대중예술이며 대중예술은 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갖게 되는 특별한 의미나 거리감을 없앤, 아무런 훈련 없이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접하고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구성되는 문화, 예술이다(정진수, 2002).

3) 리듬댄스

리듬댄스는 다양한 음악과 무용동작 및 창의적인 움직임을 사용하는 일련의 연결된 움직임으로서 전 연령에 걸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다(박인숙, 1999). 리듬댄스의 특성으로는 다양한 음악의 사용으로 참여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고 신체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녕으로 인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다(고선예, 2012). 리듬댄스를 다양한 음악을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체를 움직여 추는 창의적인 댄스(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벨리댄스, 방송 댄스)를 조작적으로 정의 하였다(고선예, 2012).

4) 실용무용

실용무용은 현대인들의 여가활동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 즉 신체·심리적 건강, 가치관 확립, 미적 추구, 자신감, 사회·문화적 역할, 매력 있는 신체를 통한 자신감의 배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 속 무용으로서 용도에 따라 즐기는 춤으로 단순히 직접적인 참여로 즐기는 의미 외에 무용을 통하여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무용(사회무용, 생활무용)이라 하여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이지혜, 2012). 또한 전통적인 예술무용처럼 공연장을 통해 공연형태의 하나로 구동적인 관람자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무용이나 사회무용과 같이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참

여자로서 즐기는 대중문화라는 점 또한 함께 내포되어 있다(김영란, 2009).

5) 공연예술

공연예술(Performing Arts)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무대와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연주, 상연, 가창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출되는 음악, 무용, 연극 등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말한다(강예은, 2021). 공연예술은 인쇄화 할 수 있는 문학과는 달리 무대 위의 공연자를 통해 공연되는 동안만 존재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없어져버리는 일회적인 예술이라 할 수 있다(이영신, 2020). 즉 무대라는 공간적 제약과 공연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그리고 제작상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대로의 재현은 불가능하므로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표현기법이 요구 되는 예술이다(강남임, 2009).

II. 이론적 배경

1. 라틴댄스 개념 및 특성

1) 라틴댄스의 개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뒤 라틴아메리카의 고대 문명들이 스페인군에 멸망하고, 쿠바를 제외한 나라들은 1800년대 중반 이전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약 300년에 걸친 식민 기간을 통한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양상의 문화로 Syncretism(제설혼합주의) 현상이 나타난다(우명희, 2008). 근본이 전혀 다른 몇 개의 전통을 하나로 합하고 유추하여 조화시키려는 시도 끝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라틴댄스라고 부르고 있는 리듬과 춤의 모태가 되었다. 라틴댄스는 민속 무용의 성격을 지니면서 1901년 쿠바가 식민지의 마지막 국가로서 독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혁명과 군부 독재 등 끝없는 혼란 속에서 희망과 좌절을 되풀이해 겪는 동안 라틴아메리카 인들은 그들의 사상, 문화 및 생활양식에 관계하여 음악과 전통을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시키며 세계적인 춤의 유행을 선도하였고(우명희, 2008), 이렇게 민중들의 애환과 고충을 함께 표현해주며,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라틴댄스”는 라틴(Latin)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멕시코 이남에 위치한 멕시코,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쿠바, 페루,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등의 나라에서 추고 있는 민속무용이다. 라틴댄스는 18세기 유럽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교를 목적으로 서로 원형을 이루어 파트너를 교체하면서 추던 춤으로, 이것은 궁중 무도회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19세기까지 발레의 기법을 사용하는 올드 타임 댄스(Old Time Dance)가 주류를 이루었고, 민속음악의 발달과 함께 여러 종류의 사교댄스(Social Dance)로 발전하였으며 점차적으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궁정 댄스 형식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대중 댄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 뉴올리언즈(New Orleans)에서 찰스턴, 트로트, 윈스텝, 투스텝 등 재즈(Jazz)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이 새롭게 탄생하였다(김소라, 2018).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주는 그들의 춤은 유럽 중세기의 농민계층에서 시작한 민속무용을 특권계층(왕족 및 귀족)에서 사교적 오락의 일환으로 세련되게 다듬어 실내 오락적 무용으로 만든 모던 볼룸 댄스와 흑인노예들의 특유한 민속무용이 결합되어 라틴계의 혈통이나 아프리카 흑인계 혈통의 혼혈아들이 추었던 춤인 라틴댄스와 같은 춤들은 1910년에서 1950년에 걸쳐 미국 및 유럽 사교계에 널리 보급되어 각국의 무도계에서는 학술적 연구와 무도회, 댄스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보급된 라틴댄스는 보급 목적과 다르게 무대와 댄스홀이 있는 유흥장이 생겨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우명희, 2008). 우리나라로 넘어온 라틴댄스는 스탠더드 댄스(Standard Dance)로 경기가 이루어지다가 라틴댄스(Latin Dance)가 1969년 경기도 송탄에 있는 미국기지 사병들에게 춤을 교육시키던 아더 머레이(Arthur Murray)에 의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 1973년에서 서울 무교동에 있는 서린 호텔에서 라틴 아메리칸 댄스(Latin American Dance) 시범 발표회를 한 후 1974년 6월 1일에 삼각지에서 사교댄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국내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교육하였다(이웅탄, 2020). 그 후 1974년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룸바와 파소도블레 종목으로 라틴 아메리칸댄스(Latin American Dance) 대회가 개최되었다(류유경, 2012). 1980년대 이후로 라틴댄스는 평생체육의 종목과 사람들의 레저와 여가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여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생활영역 안에서 여가시간을 이용한 자발적 참여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신체활동으로 즐기는 분위기로 전환되었고, 공연무용, 실용무용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며 이러한 국내

적 변화 양상들은 국제적인 변화와 추세에 힘입어 함께 하며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

2) 라틴댄스의 특성

라틴댄스는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여 혼합된 문화의 라틴댄스의 모든 종목들은 각각 다른 다양한 리듬을 지니고 있으며 종목마다 움직임과 BPM이 다양하고, 스텝과 기술 여러 표현요소들에 의한 움직임의 완성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신체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형식이 자유로운 리듬 댄스(Rhythm Dance)로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라틴댄스의 음악은 20세기로 접어들어 점차 대중음악이 되었으며, 라틴 아메리칸 계통의 음악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라디오를 통해 음악 매체가 크게 보급화 되면서 상업주의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리드미컬한 신체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미적 가치를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라틴댄스는 마치 음악과의 대화를 하는 듯한 움직임이며 춤, 음악, 파트너와의 호흡 이 세 가지의 조화를 이룬 ‘삼위일체의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소라, 2018). 신체 움직임에 있어 더 조화롭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 만들기 위한 효과로 예술 체계인 음악, 의상, 무대장치, 연출효과, 조명, 소품 등이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움직임을 더욱 돋보이게 도와주며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라틴댄스는 남자와 여자가 중심을 잡고 균형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동작은 주로 전진(Forward), 후진(Backward), 회전(Turning)등을 기반으로 구성된다(김소라, 2018). 라틴댄스에서의 움직임의 동작들을 살펴보면, 기울기, 온 몸통과 사지의 이완과 수축, 몸 비틀기,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뻗기, 점프 등 모든 것이 조화된 형태로 표현된다.

댄스의 이동 동작은 스텝과 돌기이며, 비 이동 동작은 흔들기, 돌리기, 당기기, 밀기 동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우명희, 2008). 라틴댄스의 움직임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방향선이 특징이며 무게중심이동, 점프, 회전, 턴 등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춤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스토리를 연출 시키면서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움직임은 커플댄스를 함으로써 혼자 춤을 출 때 표현하기 어려운 동작과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예술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라틴댄스에서 보여주는 강·약의 효과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강·약에 의해서 다섯 가지 형태의 춤들이 각기 다른 색깔을 표현해내며 강·약에 의해 춤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정연화, 2003). 강·약과 긴장구조로부터 동작을 함으로써 다이내믹(Dynamic)하고 리듬있는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를 얻으며, 이것은 반대로 조임과 푸는 것, 또는 박자의 타이밍으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라틴댄스는 예술과 스포츠의 혼합장르로 예술뿐 아니라 운동효과도 뛰어나며 전진과 후진, 회전 동작들은 기본적으로 워킹을 중심으로 근력과 지구력을 발달시켜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빠른 워킹으로 리듬감을 유지하므로 심폐기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으로(조규청, 2001),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움직임의 예술이자 스포츠로 댄스의 표현적인 움직임과 스포츠의 기능적인 움직임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스포츠의 단일 분야이기보다는 예술과 스포츠의 통합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김문경, 2010).

이러한 내적 특징 외에도 라틴댄스의 외적 특징인 화려한 의상과 고풍적인 무대화장, 높은 하이힐은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라틴댄스는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회전이 많고 플로어를 돌면서 추기 때문에 정면도 중요하지만 후면도 중요하다. 따라서 의상의 후면은 정면과 균형 있게 제작되어지며, 후면의 장식을 통한 시선을 집중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거나 동작의 편의

성까지 고려하여 후면 전체가 노출되는 의상을 제작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연기되는 춤을 출 때 입는 의상이기 때문에 보석 장식과 같은 디테일을 달아 빛을 발산하거나 광택 소재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상을 돋보이게 한다(양야리, 2016). 반짝이는 의상은 춤을 출 때 신체미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해주며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라틴화의 경우 통풍이 잘 되고 부드러운 가죽신발로, 신발 밑바닥이 가죽이 내피이어야 댄스동작을 쉽게 할 수 있고, T자형 구조의 끈이 발목의 긴장을 해소해준다. 여자의 경우 발끝까지 보여주는 동작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고, 5cm, 7cm, 8cm 정도 굽이 있는 하이힐을 신는다. 남자의 경우 신발굽이 좁고 윤기가 나며 Black의 에나멜(Enamel) 단화로 끈으로 된 대략 3cm 구두를 신는다. 라틴신발은 발끝까지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도록 제작된다.

헤어스타일링의 경우 춤을 출 때의 헤어스타일을 고정 및 유지시키기 위하여 헤어스프레이와 젤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고정을 한다. 본인의 스타일링에 맞게 연출하고 때로는 머리에 망을 사용하거나 의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업스타일을 더욱 풍성하게 연출하기도 한다. 또한 머리 장식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안무작품과 분위기를 만든다.

라틴댄스의 메이크업은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고 관객들이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목구비보다 크게 그리고, 격한 움직임과 격렬한 댄스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화장이 잘 지워지지 않고 장시간동안 발색과 커버가 지속될 수 있는 무대전용 화장품을 사용한다. 얼굴의 화장은 피부의 톤은 어둡고 포인트가 있는 색조와 반짝거리는 필로 눈을 부각 시키는 화장을 한다. 눈 화장을 한 후 인조로 된 속눈썹을 붙이면서 눈을 더욱 크게 보이고 과한 화장과 어울릴 수 있도록 붙인다. 이 외에도 강렬한 분위기와 무대에서 더욱 더 빛날 수 있도록 연출하기 위하여 반짝거리는 장식으로 목걸이와 팔찌 등의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목과 팔목 등에 밋밋함과 허전함을 없애

고 화려함을 연출한다. 이처럼 라틴댄스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예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내재하고 있으며 라틴댄스는 기술성과 예술성 모든 측면에서 평가되는 예술성이 높은 스포츠로 연령, 개인 능력에 남녀노소 맞추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모든 방면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체력을 증감 시킬 수 있는 특성으로 이처럼 미학적으로 예술의 개념은 창조적 미적 가치의 정서적 표현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지닌 하나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백기수, 1972).

<표 1>은 라틴댄스 5종목 특성에 대한 분류로, 각 종목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라틴댄스 5종목 특성

정식종목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기원	쿠바	쿠바	브라질	스페인	미국
박자	4/4	4/4	2/4	2/4	4/4
카운트	2&3&4,1	2 3 4&1	1a2,SQQ	1 2	1 2 QaQ
악센트	2박	1박	4박	1박/3박	2박/4박
BPM	26/27	28/30	50/52	60/62	42/44

(1) 룸바 댄스(rumba dance)

룸바 댄스는 쿠바의 토인들로부터 시작된 민속무용으로 이 춤은 쿠바에 들어온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춤이며, 양발보다는 몸의 동작만을 강조한 춤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정연화, 2003). 15세기경 아프리카 흑인노예를 태운 배가 쿠바에 도착했을 때 노예들은 양 발목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3보 밖에 움직일 수 없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룸바의 기본

스텝은 3보가 되었다고 전해진다(이경숙, 2013). 또한 과거의 노예들이 무거운 짐들을 운반하는 것에서 양쪽의 어깨 높이를 똑같이 하는 특성은 그 당시의 노예들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동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예가 된 흑인들의 그 당시의 한과 절실함을 담아 당시의 상황을 몸의 움직임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적인 문화적 측면과 동시에 연인들의 사랑과 헤어짐을 보여주는 춤으로 어떠한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삶의 이야기를 강하게 전달해준다.

룸바는 5개 중 가장 템포가 느린 종목으로 느린 음악에 맞춰 끊임없이 움직이며 라틴댄스의 대표적인 춤으로 부드럽고 관능적인 표현으로 남·녀의 사랑과 갈등을 나타내며 서로의 애절한 감정을 표출한다. 움직임에는 부드러운 힙과 호흡에 의한 움직임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춤의 한 동작마다의 움직임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관능적인 것으로 세속적이고 감각적이다. 그것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시대상황이 묻어 있으며, 사회·문화의 기초 위에 인간 삶의 표현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가장 보편적이며 이해 가능한 언어인 상징체계를 사용하면서 몸짓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이경숙, 2013). 움직임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룸바는 파트너간의 통제가 아닌 서로의 통합으로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남자와 여자는 밀고 당기기, 잡기 밀치기 등 서로 번갈아가면서 표현을 하여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룸바의 움직임 특성으로 이 춤은 기본적인 걸음 과 골반의 움직임으로 작품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무용수의 신체로부터 점차적으로 일어나며, 룸바에서 가장 중요한 체중이동은 한쪽 발에서 다른 발로 옮겨지는 기본적인 골반의 움직임은 한발체중에서 평형중심을 거쳐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을 때 골반과 몸의 움직임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골반의 움직임은 체중이 완전하게 옮겨지고 나서야 골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

한 걸음과 올바른 골반의 움직임의 형성 여부는 무릎의 움직임으로부터 좌우하며 무릎의 움직임과 정확한 체중이동으로 올바른 골반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상체는 하체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허리를 세우고 곡선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몸을 움직여야만 고풍적이고 관능적인 움직임이 표현된다. 여성은 육감적이고 부드러운 제스처를 한껏 고양시키고 남성은 강렬한 몸의 선을 보여주며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이 춤은 원래 수탉이 암탉을 쫓아오는 걸음걸이에서 나왔으며, 현대 롬바에서 이 움직임은 본능적인 액션, 골반의 움직임, 뻗뻗한 어깨 등으로 표현하고(Shirley Ayme, 1999), 오픈 힙 트위스트나, 클로즈드 힙 트위스트를 하며 힙 무빙이 돋보일 수 있는 동작들을 주로 작품에 사용하며 여성댄서의 아름다움과 관능미를 보여준다. 남자댄서와 여자댄서의 공통점은 손끝과 발끝까지 스트레칭을 하며 신체 활용을 통해 아름다운 몸짓을 보여준다.

국제적인 표준 롬바의 박자는 4분의4박자로 첫 박자에서는 스텝을 하지 않고 두 번째 박자에서 스텝을 시작한다. 동작은 3보로 무게중심이동은 타이밍 2.3.4에서 이루어지며, 타이밍 1에서는 스텝을 하지 않고 골반의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타이밍(timing)은 스텝1의 2.3.4.1 으로 악센트 비트(Accent beat)는 타이밍 2,3에 약하게, 4.1에 강하고 속도감 있게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롬바의 기본(basic)은 다른 5개의 종목들에 기초적으로 적용된다.

롬바의 더 깊고 다양한 표현으로는 인간의 깊은 감성, 열정, 관능, 유혹, 사랑, 조화, 기쁨, 환희, 열망, 슬픔, 배신과 질투 이러한 많은 감정들을 표현하며 출출할 때 남성은 마초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여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에 집중한다(김문경, 2010). 반면 여성은 우아하고 관능미 있는 표현으로 남자를 도도하게 때로는 매혹적으로 유혹하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림 1. Dorin Frecautanu & Marina 그림 2. Michal Malitowski & Joanna Leunis

<그림1>¹⁾, <그림2>²⁾를 보면 남자를 떠나려는 여자와 그 여자를 붙잡는 남자의 표현으로 서로의 신체미를 돋보이며, 남녀사이의 애절한 감정을 몸짓과 감정연기로 표현하고 있다. 혼자서 하기엔 어려운 동작을 표현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자의 무게감을 남자가 지탱을 해주며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작들이 많은 종목이다. 사랑과 이별 등 남녀의 다양한 감정표현들을 각양각색으로 연출하며 하나의 스토리로 작품을 만들어 연출하는 특성이 있다.

(2) 차차차(cha cha cha)

차차차는 서인도 제도에 있는 카리브 해안에서 자라는 타타(Tcha Tcha)

1) Dorin Frecautanu-Marina SergeevaDisney 2016 -Showdance Rumba(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dancedong/22088502773>)

2) 2 회 월드, 8 회 블랙풀, 9 회 영국 오픈 및 9 회 국제 프로 라틴댄스 챔피언 Rumba(사진출처: <https://www.wikidancesport.com/wiki/43/rumba>)

또는 콰콰(Kwa Kwa)라는 열매를 맺는 자생나무로 만든 악기의 이름에서 따온 말로 ‘차차차’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차차’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명칭으로 차차차라고 부른다.

1943년 쿠바의 음악가 페레스 페레도(PalacePrado)는 기존의 룸바 음악에 관악기들의 강한 템포를 추가하여 맘보(Mambo)라는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였고, 기존의 빠른 맘보를 어려워했던 사람들에게 1953년경 쿠바의 오케스트라 아메리카가 시간과 박자의 중약을 중요시한 단존(DANZON)을 편곡하면서 사람들이 느린 맘보처럼 듣고, 느린 부분에 샷세(Chasse)라는 스텝으로 춤을 춘 것이 차차차의 발달 과정으로 볼 수 있다(김소라, 2018).

위에서 말하는 맘보라는 것은 기본적인 룸바의 리듬에 재즈적 요소를 가미한 춤으로 싱글과 더블, 트리플로 3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트리플의 형태가 차차차로 발전하게 되었다.

움직임의 특성으로는 상체는 유연성을 기본 바탕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하체는 현란한 다리의 움직임과 힙 트위스트가 돋보이는 춤이다. 상하체의 절제된 무브먼트(movement)가 돋보이며, 박자의 강약에 따라 힙의 움직임이 다르게 표현된다. 강하고 빠른 순발력과 풋워크(footwork) 기술을 요하며 전체적으로 익살스럽고 파워풀한 관능적인 표현이 특징이다. 스텝의 보폭은 빠르고 짧게 발을 바닥에 던지며, 무릎은 거의 편 상태로 허리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강약이 정확하고 약간은 빠른 선율적인 춤이다. 룸바와는 다르게 차차차는 첫 번째 박자에 스텝을 강조하기 위해서 4&1 또는 cha,cha,one에 샷세(Chasse)를 하는데 첫 박자 스텝은 다른 스텝보다 길게 하며 스텝의 강약 조절을 보여준다. 스텝의 전진 워크는 언제나 발가락 토(Toe)부터 스텝을 시작하며, 발바닥인 볼(Ball)을 던지면서 마룻바닥에 압력을 주면서 스텝을 만들어 낸다.



그림3. EugeneKatsevman & maria manusova

<그림3>³⁾를 보면 차차차는 여자와 남자가 같은 방향을 보고 한손을 마주 잡거나, 손을 잡지 않고 떨어져서 하는 동작들이 많고,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동작과 스텝을 추는 일치성과 반복성의 특성이 있다. 같은 동작이지만 남녀 간의 또 다른 특유의 춤 색깔을 보여주며 무대 또는 영상에서 들만 춤을 추며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 관객들과 눈을 마주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작이다. 차차차 음악의 특성은 단음 또는 스타카토(staccato)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다. 차차차는 4분의4박자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카운트(Count)로 2, 3, 4 & 1이며, 2, 3, cha, cha, 1 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악센트(Accent)는 첫 번째 박자에 있으며, 차차차 역시 룸바(rumba)처럼 두 번째 박자에서 스텝이 시작된다.

3) 뉴욕 댄스 페스티벌 (NYDF)의 주최자 인 11 회 무패 아마추어 라틴 아메리카 내셔널 챔피언(사진출처: <https://www.wikidancesport.com/wiki/1112/eugene-katsevman>)

(3) 삼바(samba)

삼바는 브라질의 전통춤으로 메시시(masixe) 라고도 한다. 삼바의 기원은 브라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프리카로부터 강제로 끌려온 노예들은 쇠사슬로 목과 발과 손목이 묶인 채 억압되었다. 강제노동으로 혹사를 당하였고, 그 당시의 겪는 고통을 잊으려고 특유의 노래에 맞추어 울동했던 몸의 움직임에서 발생하였다. 브라질 카니발의 열정과 흥분을 표현한 독특한 형태의 라틴댄스의 한 종류로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멸시하여 부를 때 칭하던 '삼보'에서 유래된 것으로 흑인의 춤, 흑인노예의 춤 또는 혼혈아의 춤이라는 말이 Samba라는 명칭의 시작이다. 삼바는 1090년부터 약10년간 미국에서 사교댄스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삼바의 상업화와 국제화가 시작되었고, 1917년 볼룸댄스 형식의 삼바가 탄생하게 되었다. 보급사회에 힘입어 대중적으로 사랑받으며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예전의 삼바는 슬픔과 고뇌를 잊기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제는 행복을 위해 추는 춤이라고 할 수 있다.

삼바의 다른 뜻으로는 배꼽이라고 하며 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의 배꼽을 드러내고 부딪치며 춤을 추는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기도 하며 특유한 바운스(Bounce)와 힙 움직임(Hip Movement)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의 동작에 포르투갈의 춤들이 자연스럽게 접목되어 이질적인 두 댄스가 혼합되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김소라, 2018).

삼바는 라틴댄스종목 중에서도 힙의 움직임이 가장 강렬히 추어지는 종목이며, 중요한 특성으로는 리듬에 맞춰 표현하는 골반과 무릎의 바운스(Bounce) 액션이다. 삼바의 바운스 액션은, 해석 그대로 반동력과 탄력이란 뜻이다. 모든 삼바의 스텝은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다리 중 발목과 무릎에서부터 시작된다. 움직임에 있어 전진 스텝은 차차차와 동일하게 발의 볼 부분부터 바닥에 닿고, 발이 닿는 즉시 발바닥을 펴서 발전체가 바닥에 닿

도록 한다. “&”또는 “a”의 카운트(Count)는 무조건 볼 부분만 당도록 한다. 삼바는 특히 상체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춤으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허리는 그것들이 서로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축의 역할을 함으로써 생기발랄한 신체미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춤이다(이경숙, 유현미, 2012).

삼바가 액션을 시작하는 타이밍은 1 a 2 a 3 a 4 a 5 a 6 a 7 a 8이며, 업(up)으로 스텝을 시작할 때의 바운스(Bounce) 액션을 쓴다. 주로 사용되는 타이밍은 & 1 & 2 & 1 & 2이다. “one” 박자 뒤에 “and”또는 “a”로 시작되는 바운스 액션의 다리를 피는 것은 2분의1박자의 스텝을 취하는 동안에 계속된다.

삼바는 모든 동작에서 골반과 무릎 탄력을 통해 생동감 있고 신나는 춤사위를 보여주며, 삼바는 무대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큰 원을 그리듯 돌아가면서 추기 때문에 발의 보폭을 크게 하며 공간에 한정적이지 않고 공간의 활용범위가 크고 넓게 사용 할 수 있다. 삼바의 리듬은 마치 심장박동소리와 같이 들리며, 이러한 리듬을 활용해서 춤의 강약과 빠른 박자의 날렵한 움직임으로 포인트를 준다. 익살스러운 몸짓과 표정으로 관객들의 몰입과 강한 에너지를 전달 할 수 있다.

음악적 특성으로는 2/4, 4/4박자로 표현되며 두 마디 진행이 하나로 편성된 보사노바와 달리 각각의 한마디에 리듬편성이 이루어져 있다. 춤곡의 일종인 삼바의 특성상 각각의 비트의 첫 박에 악센트가 있으며 여러 타악기들이 4박자 안에서 서로 다른 여러 리듬을 연주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 리듬들을 일컬어 클라베폴리(Clave)와 폴리리듬(Poly Rhythm)리듬이라 한다. 서정적이고 차분한 보사노바와 달리 매우 경쾌하며 자유분방한 리듬이 삼바의 특징이다. 삼바 연주에는 많은 타악기들이 연주에 사용되며 그 악기 하나하나가 전통삼바의 느낌을 실어준다. 하지만 국내로 들어온 삼바는 대중가요라는 테두리 안에서 조금씩 다듬어져 전통삼바보다는 덜 화려하고 획일화된

형태로 변형되었다(조성재, 2010).

삼바음악의 대표작으로 돈가(donga)의 작곡인 펠로텔레폰(pero telefone)이다.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춤으로 “배꼽”이라는 뜻을 지닌 삼바는 허리와 어깨 움직임이 격렬하며 정열적인 리듬을 발전시켜 세련되게 한 것이 현재의 댄스 음악으로서 사용되는 삼바이다(정연화, 2003).



그림 4. Riccardococchi & YuliaZagoruychenko

<그림4>⁴⁾의 설명으로 새도 리버스 롤(Shadow reverse roll)이라는 동작이다. 여자와 남자가 밀착하여 같은 방향을 보고 회전하는 동작으로 1~6보 사이에 거의 360도를 회전하는 동작이다. 이 동작은 남자가 여자보다 대체적으로 키가 크기 때문에 남자가 앞에 있는 여자를 뒤에서 리드하며 춤을 춘다. 하지만 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키가 비슷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포지션을 바꾸어 춤을 추며 여자와 남자의 동작이 기본적인

5) 10회 무패의 프로페셔널 라틴댄스 챔피언 Samba(그림출처: <https://www.wikidancesport.com/wiki>)

로는 정해져있지만, 무조건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의 전환과 새로운 발상을 보여주는 작품연출이다.

(4) 파소도블레(Paso Double)

스페인에서 시작한 파소도블레는 집시(Gypsy)들에 의해 유럽전역으로 전파되었으며, 파소도블레가 대중화 된 시기는 1930년대에 파리의 상류층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따라서 춤의 휘겨(Figure) 또한 프랑스어의 명칭들을 가지게 된 것이다(김문경·김미숙, 2012). 구라파의 남쪽 나라들 즉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등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추는 댄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춤으로 거의 30~50%에 도달할 정도로 인기 있는 춤이다. 파소도블레라는 말 자체의 뜻은 파소(Paso)는 걸음 (Step)을 의미하며 도블레(Double)는 두 개 또는 2배를 뜻한다. 따라서 파소도블레는 ‘2개의 스텝’이란 뜻을 나타낸다.

움직임의 특징으로는 경쾌하고 씩씩한 모습을 나타내며, 남자는 투우사 그리고 여자는 투우사가 소와 싸울 때 사용하는 화려한 망토(외투)를 상징한다(이순원, 2008). 망토를 묘사하면서 실제로 투우에서 사용되는 망토는 아니지만, 볼룸에서 재현되는 투우사의 상징적인 춤으로써 내면의 미감을 표출하여 춤의 절정에 이르는 추상적 특징을 지닌 춤이다(이경숙, 2011).

투우 장면의 연상을 춤을 통해 이야기하려고하는 내적인 요구에 의해 연출되는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춤의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남녀커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경숙·반주은, 2012). 연상을 통해 투우와 투우사의 보여주는 댄서들의 움직임과 순간순간에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연기는 보는 사람들에게 긴장감과 희열감을 느끼게 한다.

파소도블레의 전진 스텝은 힐(Heel)부터 움직이며, 후진 스텝 또는 제자리에서 스텝을 할 땐 앞볼로 움직이며 힐(Heel)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내려놓

지 않는다. 또한 다른 종목과 다르게 힙의 움직임이 없으며 절제되면서 파워풀한 움직임을 중시한다.

음악적 특성으로는 리듬 변화가 거의 없는 1-2-1-2 행진의 간단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 음악의 템포는 일반적으로 분당 120-124 비트, 분당 60 측정이다. 4분의 2박자로 제일 큰 악센트는 각 소절의 첫 박자에 있으며 노래에는 노래의 고정된 위치에 휴식 또는 “하이라이트”가 있고, 두 개, 또는 세 개의 하이라이트가 있다. 이 하이라이트는 음악을 강조하고 음악의 다른 부분보다 더 강력한 사운드로 댄서들은 일반적으로 하이라이트 끝까지 유지하는 트릭과 위치를 수행해야 한다. 파소도블레의 음악은 실제로 투우장에서 행진곡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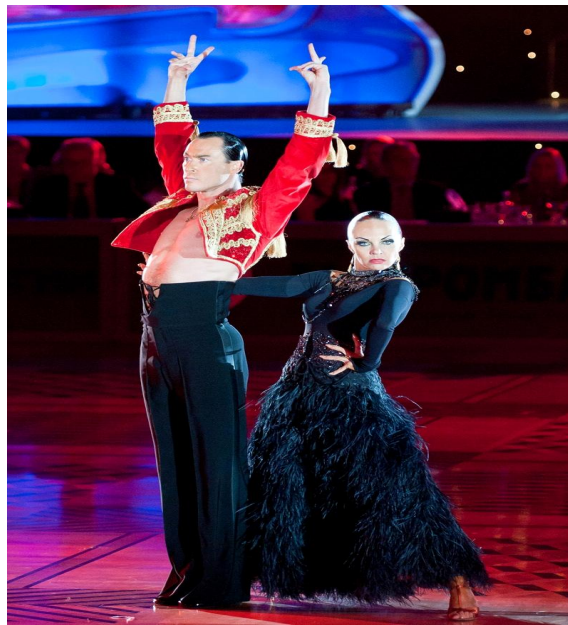


그림 5. Sergey Sourkov & Agnieszka
Melnicka

<그림5>⁵⁾ 춤을 출 때 남자는 투우사 역할을 당당해 보이고 강한 자세로 취하고, 여자는 그의 망토 역할을 하는 모습 속에서 고유한 미감을 자아낸다. 또한 스페인의 전통춤인 플라멩고 리듬이기 때문에 춤 속에 서로를 응시하는 긴장감과 강렬한 눈빛은 파소도블레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연출된다. 전진 또는 후진 스텝이 많기 때문에 플로어 둘레로 이동하면서 무대를 전체적으로 사용한다. 그림과 같이 팔을 높이 들어서 보다 높은 자세를 취하고, 팔과 팔꿈치, 손가락, 앞꿈치, 몸의 곡선이 강조되게 표현한다.

5종목 중에서 음악과 동작에 의해 구성되는 춤으로 남녀의 방향과 동작이 명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5) 자이브(Jive)

자이브는 재즈(Jazz) 음악이 1930년 무렵에 부기우기(Boogie Woogie) 연주법이 사용되며 이 음악에 맞춰 북미의 흑인들의 익살맞은 몸짓을 곁들여 추던 댄스로 일명 스윙댄스(Swing Dance)라고 한다.

1945년까지는 재즈 또는 스윙댄스, 지터벅(JitterBug)등으로 불려왔고, 이 지터벅은 처음에 아주 아크로바틱(Acrobatic)하고 격렬한 춤으로서 세계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군인들이 그들의 주둔지에서 재미있는 움직임으로 열렬히 추는 것을 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따라서 추었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을 기점으로 미국 전역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조규청, 2001). 미국의 남동쪽에 있는 흑인들의 움직임으로부터 함께 생겨났으며 재즈 음악에 맞추어 추는 신나고 격렬한 춤으로, 살사(salsa), 록큰롤, 디스코까지 다양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한다. 움직임에 표현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다양한 음악과 어울려 자이브만의 독창적 발상이 돋보인다.

신체의 움직임으로는 무릎을 낮추고 볼로 밟아 뒤꿈치를 내리고, 무릎을

5) 2014년블랙폴 댄스 페스티벌 프로페셔널라틴3위 Paso Double (사진출처: <https://www.wikidancesport.com/wiki>)

퍼면서 발로 차거나 다리를 때리는 몸짓이 강조되고 몸통과 골반을 강조함에 따라 신체미가 돋보이며 또한 자이브는 신체의 다리와 발을 조금 더 강조되는 것으로 상체와 하체가 서로 같은 느낌으로 반동하며 움직이고, 시선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신체미가 크게 발산되는 춤이다(이경숙·이정호, 2015).

움직일 때 발로 체중이 이동할 때 힘을 내려 주고 무릎을 내리는 경우 다른 발을 힘을 들고 힙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한다. 짝수 2.4.6.카운트에 강하게 하며 무릎을 90도로 들어올린다. 댄서들이 발을 모든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발은 실제로 무릎이 서로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몸 아래에서 제어하고 샷세를 통해 힙의 스윙이 만들어 진다.

자이브는 5개의 종목 중, 제일 신나고 밝게, 개구쟁이처럼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해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공유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춤이다. 자이브는 커플로만 할 수 있는 춤이 아니라 혼자서도 가능한 춤이다. 또한 빠른 박자에 퀵(Quick)동작과 점프를 하며 하체 와 복근 단력과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스텝으로 많은 칼로리 소모가 되며,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임으로서 다이어트에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4/4박자로 구성되고 카운트(Count)는 Q a Q 또는 3 a 4로 이루어졌으며, 악센트(Accent)는 2박자와 4박자에 있다(김소라, 2018). 또한 당김음의 음악을 사용하여 6박자 동안에 8박자를 움직인다. 수직적 형태의 라틴댄스 중 가장 빠른 리듬으로 1분에 42~44소절(bar/minute) 템포로 되어 있으며(류유경, 2012), 템포의 폭이 가장 크다.



그림 6. stefano Di Filippo-Daria ChesnoKova

<그림6>⁶⁾ 라틴댄스 중 가장 빠른 종목으로 모든 스텝을 할 때 바로 다른 스텝으로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가장 많고, 발끝을 사용해서 중심을 이동시키며 무릎(Knee)의 움직임에 의해 바운스를 주는 형식으로 수직방향의 상하 움직임이 강조된다. 또한 코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쇼적인 재밌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여성은 체중을 뒤로 빼고, 남자가 앞으로 체중을 두며 끌고 가는 듯한 남녀의 다양한 연출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출과 함께 밝고 신나는 표정으로 춤을 추며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달하는 특성이 있다.

6) 2019년 블랙풀 댄스페스티벌 프로라틴2위 Jive(사진출처: <https://www.wikidancesport.com/wiki>)

2. 대중예술의 정의 및 특성

1) 대중예술의 정의

“대중”이란 계급, 지위, 학력, 재산 등의 사회적 속성을 초월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로 이뤄진 수동적·감정적·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진 집합체이다. 군중, 공중, 민중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사회학 또는 사회 과학적 개념으로서도 매우 다의적이며 이론상 입장의 차이에 따라 규정하는 방법도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져 왔다(정진수, 2002). 현대의 문화상황 속에서 문화 소비주체로서의 대중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군중이라는 양적인 집단, 주어진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서의 익명성 집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정혜윤, 2020). 영국의 문화 이론가 폴 바커(P. Barker)는 “대중문화의 ‘대중’은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닌 사회의 모든 계층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는 개인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박성봉, 1995) 라고 주장했고, 정진수(2002)는 “특별한 노력이나 의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오락거리였다가도 때론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기도 하는 단순하고 유치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이 대중문화예술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최재귀, 2021).

대중문화는 주체성이 없고 비합리적인 열등한 집단이라는 냉소적인 뜻으로 근대자본주의 이후의 문화 산물로 규정하고 또 하나의 대중문화인 Popular Culture는 보편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 소비, 민중적 문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김민수·한화성·김건, 2016). 대중문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기에,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정치적 재현의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을 설명하

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김민수·한화성·김건, 2016).

‘예술’에 해당하는 독일어의 ‘쿤스트(kunst)’ 영어의 ‘아트(art)’, 불어의 ‘아르(art)’, 라틴어의 ‘아르스(ars)’, 독일어의 ‘쿤스트(kunst)’, 그리스어 ‘테크네(techne)’ 등은 모두 일정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련된 능력이나 활동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한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서구 자본주의사회의 출현과 함께 형성된 대중문화는 민주주의와 상업주의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성장을 하며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고급문화를 밀어내게 되었고, 문화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고급문화를 창조했던 예술가들이나 후원자들은 새로운 문화예술 고객을 중산층에서 찾게 되었다(이지혜, 2012). 즉, 대중문화는 고급문화와 대비되어 사용되며, 고급문화가 사회의 상류층을 기반으로 하여 세련되고 지적인 예술적 문화라면, 대중문화는 대중사회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중을 위한 예술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대중문화이다.

20세기를 넘어오면서 현대인들은 새로움의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점차 활용성 있고 긍정적이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문화’라는 키워드는 우리의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었고, 사회적인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확장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문화라는 것은 완성된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제 대중예술은 단순히 즐기는 것, 재미있는 것, 좋은 것의 의미에서 벗어나 삶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때론 과학에서 그 의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민주주의가 형성되면서 개인들이 주체성을 갖게 되었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정립된 중산층이 스스로의 문화를 즐기고자 하면서, 그들을 위한 문화가, 대중을 위한 문화가 탄

생한 것이다(정진수, 2002). 또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서구사회가 산업화, 전문화, 도시화,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신문, 도서, 라디오, TV, 영화, 광고, 잡지, 음반 등 대중매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대량 생산, 대량 전달, 대량 소비의 상업주의라는 이념 하에 대중예술이라고 부르는 문화 산물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용단 폭격하듯 쏟아부어왔다(박성봉, 1994). 대중문화예술은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장르는 영화, 대중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만화 산업, 비디오(DVD), 방송 소프트웨어 등 다양하다(최재귀, 2021). 이 밖에도 연극, 무용공연, 공연 예술, 디자인과 사진 등의 시간 예술, 미술관 및 박물관, 패션디자인 등도 대중예술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하여 파악되어야 하는 대중예술은 대중들과 대중들에 의한, 대중들을 위한 문화이고 대중들의 삶 속에서 대중의 직접적인 체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예술이다. 고급 예술과 대립되지 않으며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다. 즉, 대중이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더라도 대중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대중의 것이 된 예술이다

2) 대중예술의 특성

대중예술이란 말은 곧 대중매체를 가리키며,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의 문화 상황들을 대중문화라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대중들은 각자의 특성과 성향을 지니고 있다. 대중화는 대중들의 속으로 흡수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중들의 접근성이 용이한지, 얼마나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한혜주, 2020). 문화예술의 대중들의 정서와 생활, 깊숙하게 내재되어있는 무의식 안에 존재하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준 높은 문화생활의 영위를 원하고 있다. 대중예술의 경우에는 그 문화를 향유하려는 대중의 수가 많고, 무엇보다 그 목적 중 ‘상업성’의 측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순수예술의 쇠퇴와는 달리 발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한혜주, 2020). 대중예술의 가장보편적인 특징은 자본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TV프로그램은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인 소재로 만들고, 음악은 중독성 있는 반복적 후렴구를 만드는 것처럼 대중예술은 자본과 깊은 연관을 맺는다. 그로인해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지배할 수 있으며, 대중예술은 자본에 종속되어 자율성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수예술에 비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은 사사로운 의견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나누어 가진 상식의 영역이다. 그것은 과학이나 이론처럼 인위적 공통성이 아니며 그것은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남아있는 공동적인 판단의 근거에 입각한 대화와 나눔의 계기가 된다. 대중예술의 메시지와 형식에 대한 이해의 방법을 제공하며, 또 그것은 대중예술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계기가 된다. 소위 이해타산과 무관한 낙으로서의 예술경험과 예술의 본질은 정치나 경제적 관심보다 훨씬 깊은 관심을 지향하는 관심 깊은 해석을 추구한다. 전인적 대화를 추구하며 단지 정치나 경제적 정의나 권력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예술이해 방식이다(신국원, 2005).

‘대중문화예술인’은 연예인, 방송인, 가수, 연기자, 희극인, 성우, 뮤지컬 배우, 연주자, 모델, 댄서, 공연예술가, 등으로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 대중들을 만나는 사람을 통칭하며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을 연예인 혹은 방송인으로 말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의 범위는 이들을 포함하여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인 기획, 촬영, 미술, 음향, 편집, 보조연기자 등 관련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최재귀, 2021).

Ⅲ. 장르별 대중예술의 개념과 특성

1. 팝아트

1960년대 급속한 산업 발전과 대중적 소비문화의 파급은 그 당시까지 고수되어 온 순수미술과 대중미술의 벽을 허물어 이른바 팝아트(Pop Art)라는 새로운 미술을 등장시켰다(정진수, 2002). 영국의 팝아트는 미국보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전조가 된 예술 활동이 있었다. 1950년대 초부터 리처드 해밀턴, 에두아르드 등 신세대 작가들이 모여서 문화, 예술, 매스미디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전시회 등을 개최하며 팝아트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미국의 팝아트는 1950년대 초기 화단을 이끌었던 추상표현주의 작품의 애매하고 환영적인 형태와 주관주의 미학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다. 추상표현주의의 개인적인 태도와 종교적이거나 심리학적인 내용을 배격했고, 미술과 삶에 대해 보다 장난스럽고 아이러니컬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 즉 산업화에 따른 대량 생산들로 풍요롭고 많이 찾는 대중적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부터 미술가들은 예술적보다 대중적인 이미지들을 작품에 담기 시작했다. 이른바 코카콜라, 영화스타들, 만화, 광고 등 일상적인 소재들을 사용하여 작품 속에 그대로 반영하여 관람자들이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예술을 소수의 교양 계급의 전유물로부터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팝아트의 전략으로는 첫 번째, 재현의 확대 : 팝아트는 평범하고 작은 것을 거대하게 재현함으로써 충격을 주었다. 햄버거, 변기, 립스틱, 빨래집게 등 일상품을 크게 확대하거나 비닐로 부드러운 조각을 만듦으로써 대중을 새롭게 환기시켰다. 두 번째, 성에 대한 관심 : 팝 아티스트들은 음침한 터부와 내적인 악마성 으로서의 성을 다룬다기보다는 공공연한 성애, 성적 매력이 넘치는 여성을 주로 다뤘다. 팝 아티스트들의 관심이 예

술성, 형식 문제, 고상한 취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의 것들에 있었기 때문에 외적현실에 대한 외부적 반응이자 수용의 결과였으며, 이제까지 시각예술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대중문화를 끌어들이어 현대적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정진수, 2002). 팝아트는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작품을 발견하고, 일상에서 보던 물건들이 거대한 크기로 엉뚱한 곳에 놓여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신선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적인 이미지들로 순수미술과 구조를 허물어 버리고 산업사회의 현실을 미술 속으로 투영시키고자 저급과 고급의 차별을 제거하였고, 대중과의 소통을 함으로써 전위적이고 진보적인 예술 장르가 될 수 있었다.

2. 대중영화

한국영화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성공에 힘입어 천만 관객 동원과 산업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영화의 소재를 통해 남북한 분단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사회문제, 정치, 사건사고 등의 다양한 소재가 실화를 바탕으로 다뤄진 영화도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영화산업의 외형적 규모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 상업영화의 발전은 문화소비로서의 대중문화 속성과 다양한 대중의 속성을 파악하여 만든 웰 메이드(well made)영화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미디어적 현상이 주원인일 것이다(김민수·한화성·김건, 2016). 한국의 대중영화가 영화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며 점차 자연스럽게 미디어 매체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많은 담론들이 생성이 되었고 또한 대중영화의 파급력을 인지한 미디어 매체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사회 정치적으로 변화를 이끌기도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민수·한화성·김건, 2016).

대중문화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접근은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실감하지 못하듯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이거나 작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세상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재현하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영화<친구>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전략인 노스텔지어(nostalgia)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대중들에게는 대단한 호응과 열렬하게 지지를 받았지만 평론가들로부터는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특히 부산 지역을 필두로 돌풍을 일으키며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80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로 한국영화사에 한 획을 긋는 또 한 번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친구>는 수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대중문화로서의 영화적 흥행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김민수·한화성·김건, 2016). 이렇게 한국영화가 대중문화로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와 정치적 변화, 영화 소재의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다양성, 블록버스터 영화의 진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예술영화를 대하는 영화 관객들의 영화 관람 문화나 인식에서 예술 영화는 다른 일반적인 대중영화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멀티플렉스 극장의 확산으로 한 극장에 상영관이 10개, 혹은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중영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영화를 골라볼 수 있다. 또한 대중영화는 대규모 자본의 투입을 기반으로 텔레비전 연예정보 프로그램, 광고, 인터넷 배너 홍보, 인터넷 기사송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중영화의 관객은 영화에 대한 정보를 굳이 힘들여 찾지 않아도 손쉽게 영화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반면에, 예술영화는 1~2개관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예술영화전용관이나 영화제와 같은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관람할 수 있고, 다매체를 통해 대규모 흥

보를 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예술영화 관객 스스로 영화 상영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영화 관람의 제약이 대중영화보다 더 큰 편이다 (권혜원, 2010).

또한 대중영화는 스크린에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이것은 환각을 경험 및 체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화의 이미지는 일종의 환상이며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주인공 또는 출연진에게 동화되면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환각체험과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즉석적인 환각체험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이성보다 감성, 의식보다 무의식의 영역에 속한다. 이런 문화에 대중들이 환호하는 것은 논리적·합리적·비판적 사고에서 발생해 받은 스트레스를 감성으로 해소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고 대중의 욕망을 채워 준다.

3. 대중무용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로 움직임을 통해 사람들은 신체의 단련, 기능학습과 같은 신체적 영역 외에 정서순화 표현기능 및 능력의 향상 창조성 육성이라는 예술적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궁극적인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게 된다(김영미, 2001). 대중무용은 보는 무용, 참가무용 모두를 포함하여 중산계급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일반인 모두가 손쉽게 수용 및 향유할 수 있는 무용으로, 증가하는 여가시간을 보다 건설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유도함으로써 인간의 체력과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며 무용 활동 참가를 통해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정진주, 2002). 무용의 대중화도 이제는 어떤 한명의 특정인물이 목적이 아닌 보편적인 다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무용예술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즐기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대중화로서 보편화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대중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이 이루어지며, 공연물 장르에 대해서도 보편화되지 않고 다양성과 다방면적인 방향으로 개방화되며 관객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정되어 있는 전통적인 순수무용예술 분야에서 탈피하여 남녀노소 모든 세대를 포함하고, 각기 다양한 성향의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성 있는 공연물의 기획을 개발하기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순수예술의 진흥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수용하여 관객의 기반이 한정되어 있는 여건 속에서도 예술적 기준과 가치, 명분에 초점을 두어 공연물을 선정하는 태도를 취해왔으나, 최근에는 다른 일반사업 분야와 같이 대중적 취향의 공연물을 선호하는 입장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인권, 2003). 사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문화이든 그것들이 대중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존재하며 대중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중무용의 성공적인 예로 Mnet의 <댄싱 9>은 일반인들과 무용인들을 포함하여 참가자와 모든 무용장르의 구분을 없앤 국내 최초로 방영된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최고 시청률 3.6%를 얻으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댄싱 9>성공은 그동안 예술의 영역에서만 언급되었던 순수무용이 대중무용과 함께 융화되어 시청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대중적 요소로는 참가자, 마스터, 제작진을 포함한 시청자에게 열려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상호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무용수 개인의 서사성을 스토리텔링하고 있으며 작품의 주제와 작품 형성과정 등을 구체적 보여주면서 디지털 기술로는 포괄할 수 없는 몸의 본질적인 움직임을 마치 ‘놀이’를 하듯 진행되는 춤 경연을 통해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하여 대중과의 교감

을 이루었다 할 수 있다(김미정, 2014). 이러한 요소들은 많은 파급효과를 내며 케이블 시청률 1위와 자체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수 있게 만들었고, 참가자인 무용수에 대한 관심은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팬덤 문화를 형성하였다. 무용수의 팬들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무용수들의 실제 공연장으로까지 보러가는 대중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고 TV라는 효과적 매체 활용을 통해 무용으로 수용자들의 공감대를 확장시켰으며 특히나 대중무용의 활성화 계기와 순수무용의 저변확대를 마련하여 무용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예술적 소재를 TV매체를 통해 방영하고 시청자들의 대중적인 공감을 얻어 성공을 거둔 대중무용으로서의 춤 콘텐츠라 할 수 있다.

4. 대중음악

동아시아의 지역 음악이자 월드뮤직의 일부로 범주화되고 인식되던 한국의 대중음악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류열풍과 뮤직비디오, 힙합, 댄스뮤직의 유행과 함께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미디어 및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심화되었다(권혁필, 2021). 1990년대는 HOT, 신화, 젝스키스, GOD, SES, 핑클 등 그룹형 대중음악가수의 등장으로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으며, 2000년대는 보아, 동방신기, 원더걸스,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빅뱅 SS501 등의 아이돌 가수들은 한국의 대중음악 산업을 부흥시키고 안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현재 BTS, 블랙핑크, 싸이, 엑소(EXO), 레드벨벳 등의 가수를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세계화를 이끌며 세계적인 음악 시장에 한류 열풍을 다시금 일으키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연예 산업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대중음악 가수들은 대중의 인기와 부의 축적이라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

있으며 더불어 국내 대중음악 산업 또한 국가적 이미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함께 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중음악 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과거 대중음악에 대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대중음악을 더욱 쉽게 접하고 즐기는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아실현과 성공을 위해 ‘대중음악 가수’라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재귀, 2021).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은 아시아인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에서 3관왕을 수상했으며, 대중음악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불리는 그래미상에서 무려 2년 연속 수상 후보에 올랐다. 본상 후보에는 지명되지 못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베스트 팝 듀오 또는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유경선, 2021.11.24.). BTS의 소비창출 규모가 7422억원, 생산 유발효과는 1조2207억원, 업계에선 BTS가 네 차례에 걸친 이번 미국 투어를 통해 공연 부문에서만 4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7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진은 “K팝 콘서트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BTS 콘서트가 코로나 이후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중음악 공연산업을 필두로 문화·관광 등 유관 분야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승목, 2022.04.20.).

이는 UCC, SNS 등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의 발달과 이에 응하는 전략의 변화로 인해 거둔 성공이라 할 수 있으며, 실시간 거리낌 없이 풀 전략이 가능하고 음악 상품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을 초월한 공간이 형성됨으로 인해 일방적 마케팅이 아닌 개방적 마케팅의 형태로 한국 대중음악을 국내, 국외로 알릴 수 있게 되었다(박봄, 2012). 이렇게 대중음악 산업의 산업적, 기술적인 혁신을 일으켜 세우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였다.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와 애플뮤직, 멜론, 벅스 등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인터넷 영상 스트리밍 기업들의 등장이 가져온 미디어 기술의 진보는 대중음악 산업으로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대중음악의 혁신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권혁필, 2021).

메신저인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자랑하는 연예인 대부분은 SNS를 통해 중간 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팬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유명세와 이러한 팬덤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사용하고 추천하는 상품들이 확대되어 패션, 뷰티 아이템, 관광 등 관련 산업에의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 K-POP에 있어서 SNS를 통한 개입은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대중음악은 대량으로 생산되고, 대량 매개되고, 대량 소비되는 현대에서의 대량문화의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 결과 20세기 이후의 대중음악은 오락성, 상업성, 유행성 등의 특별한 음악적 지식이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다수의 청중을 위한 음악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IV. 라틴댄스의 내재된 가치와 대중적 특성

1. 라틴댄스의 내재된 가치

1) 사회문화적 가치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스포츠의 개념을 단지 운동량만으로는 측정하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상호간의 친교활동으로 인한 사회성도 포함되기 때문이며, 감미로운 음악에 맞추어 추는 율동과 함께 품격 있는 대화를 통한 이러한 활동은,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끼리 격의 없는 대화와 친교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넓은 친목과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임재숙, 2002). 라틴댄스는 나이와 성별상관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춤 문화예술로 스스로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참여성과 춤을 배우고 추면서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다양한 종류의 리듬과 더불어 즐거움을 받으며 유희성을 느끼고 사람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회성을 지닌다. 현대사회의 대중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면서 삶의 가치의 대한 관심과 문화생활을 참여하고 즐기는 빈도수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여가문화로서 라틴댄스가 근원적 존재가 되었다.

또한 라틴댄스는 상호간의 호흡과 예의범절을 중시하며 요즘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서로를 존중하는 매너와 사회성을 함양 할 수 있으며 라틴댄스가 지닌 유희성, 참여성, 사회성이란 강점은 라틴댄스가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이채원, 2011), 라틴댄스는 파트너와 단체적인 협동심, 책임감, 상호간의 예의, 무대질서와 타인에 대한 인격존중, 관용성과 자제력 등을 기를 수 있다는 사회학적인 가치가 있다.

모든 예술은 감정표현을 통해 사람들에게 미감을 가져다주듯 서정성을 주

요 특성으로 삼는 예술로써 감정 작용이 뚜렷하고 더욱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표현해낸다.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며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광범위한 사회 및 감정적 측면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무용을 통해 타인의 내면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며 인간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만들어준다(윤정은, 2004). 즉, 섬세한 감정, 깊은 사상, 뚜렷한 성격,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 사람과 사람 사이 및 자신 내부의 모순과 충돌 등 사람들에 의해 감지되는 생동감 넘치는 무용 이미지가 돋보이며 무용 작가의 심미적 감정과 이상을 표현하고 생활을 반영 한다(염영동, 2021). 이러한 가치들은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신체 컨디션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게 해주고, 특히나 인간관계에서의 건전한 만남과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단체 활동으로도 매우 적합한 사회적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2) 예술적 가치

춤이란 인간의 마음속으로부터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적활동으로 인해서 표출된 자연스런 몸짓이다. 춤의 본질은 신체의 움직임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신체를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에 있는 것이다. 춤의 발생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부터 표출된 아름다운 움직임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춤은 인간 자신이 주체이며 표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율동적으로 움직이면 쾌감을 느끼고, 이러한 신체적 쾌감은 예술로써 승화되어 고도의 형이상학적인 쾌감과 상통한다. 춤은 단순히 인간의 본능을 표현하는 신체적 율동이 아니라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인체동작언어의 예술이며,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지향한다(한수아, 2000). ‘춤의 목표를 인간 형성에 두고 있다.’라는 이론을 근거해서 라틴댄스를 말한다면 라틴댄스의

근본정신인 노예가 살기 위해 필요로 하여 춤을 추고 그 속에는 인간 본연의 내면이 담겨있는 인간적인 예술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틴댄스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예술적 특성은 고도의 기술성의 경이로움과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성을 함께하고 있으며, 파트너와의 호흡을 맞추는 일치성, 음악의 리듬감과 함께 춤을 추는 음악성, 움직임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표현의 창의성, 공간사용의 공간감각, 그리고 소름 돋는 연기들은 춤사위를 보는 즐기는 사람에게도 라틴댄스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이다.

무용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음악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사용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안무목표에 합리적으로 사용하면서, 무용수들과 관객들을 연결시키는 좋은 매개체로 사용(손윤숙·나선영 역, 1995)하는 등 무용과 음악은 서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랫동안 통합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용과 음악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필연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요소로 중요한 예술적 동반자인 것이다(최은옥, 1996). 라틴댄스에 있어서도 음악은 절대 분리시킬 수 없는 장르이며 예술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움을 준다. 음악은 움직임의 충동성을 북돋우며 신체적인 에너지 사용의 변화와 다양성을 꾀할 수도 있는데 조명과 배경 역시 빠질 수 없고 무용은 공간, 시간, 동작성이 종합된 동태적 조형 예술이라 할 수 있다(염영동, 2021) 즉, 예술적 가치로는 라틴 음악의 리듬과 파트너와의 호흡에서의 음악성과 일치성, 고도의 기술성, 동작의 연결과 표현의 창의성,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공간감각성 등 여러 가지의 예술적 가치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음악의 박자, 악센트, 멜로디, 음색, 템포, 다이내믹 등의 특성과 다양성을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다(박영애, 2012). 음악을 통한 움직임의 충동성은 음악으로부터 감정이 생기고 이것을 끌어냄으로써 신체 움직임

의 리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음악은 리듬이 들어있는 움직임과 조화되어 커플간의 신체적 조화를 유도하고 표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로 이어진다. 댄서들은 음악과의 조화를 이뤄나가면서 서로가 타이밍, 리듬변화를 느끼며 서로 소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음악을 느낀다는 것은 댄서에게 의도치 않은 자유로운 움직임을 주고 더 많은 예술적 상상력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음악과 일치되는 조화가 이루어지며 최고 절정의 댄스에너지를 발산하는데 도움을 준다(함서정·안병주, 2021).

3) 교육적 가치

초기 그리스 문명에서도 무용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무용을 예술의 한 형태로 만드는 초석이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도 무용이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예술교육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공헌하였다(송미숙, 2000).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인간이 지니고 있는 표현 욕구와 활동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로 인해 사회에서의 심신안정과 건강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소질을 신체활동을 통해서 학습함으로써 정서적, 지적, 신체적, 안정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을 육성시키며 발전시켜준다.

교육적 가치로 첫 번째, 교육적 학습을 통하여 율동적인 동작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보다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욕구를 느껴보는 경험을 하며 개인의 주체성과 자아상을 찾게 하고 신체의 동작과 미를 찾아보게 한다.

두 번째, 사회생활에 필요한 올바른 사회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무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놀이로서 집단행동을 체득하는 데 매우 적합하

다. 무용을 통하여 함께 협동하여 합을 맞추면서 협동심과 단결력의 조화로 집단 구성원들의 동료의식이 개발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그룹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를 깨닫게 한다. 또한 김향금과 현희정(1996)에 따르면, 무용교육을 “신체의 발달, 상상력, 창의력의 발달, 지적발달, 미적발달, 감상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창의적인 인간을 기른다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며,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라틴댄스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주입식 교육에서는 길러질 수 없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루틴의 순서와 창작활동으로 기억력과 창조적 표현을 돕고 리듬감을 만들어 내는 능력치를 높힐 수 있으며, 무대의 활용으로 자기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공간형성 능력을 길러준다.

4) 신체적 가치

춤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은 춤을 추는 사람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 속에서 창조된 자기 사상이나 감정, 감각, 정서, 관념 등 움직임의 표현이 현상으로 나타나서 몸짓 언어로 표현되고 미적인 요소가 시각적 혹은 시청각적으로 창출 되는 것을 춤이 가지는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배혜경, 2002). 신체의 움직임과 음악의 일치성은 대중들에 몰입을 고조시키며, 필수 요인이며, 인체의 동작은 쉬지 않고 유동하며 변화하는 특징으로 인해 반드시 일정 공간(무대 혹은 광장) 및 시간 속에 존재해야 한다(최은옥, 1996). 현재 문화예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중예술과 전통예술, 고급예술과 현대예술, 무용과 음악, 문학과 공연 등 모든 분야가 융화되어 구

분되지 않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일차적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현시대에 예술무용과 대중무용은 다양한 동시에 급격한 대중사회 혹은 문화적 다중사회로의 진행으로(김태원, 2004),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신체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라틴댄스는 앞서 대중무용의 특성과 같이 신체움직임과 음악과 박자의 일치성을 중요시 하는 춤으로 대중들의 몰입을 고조시킨다. 또한 예술과 스포츠의 혼합으로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유산소와 근력활동으로 운동효과도 뛰어나다. 단순한 근력운동과는 달리 방향 감각과음악성, 그리고 과학적인 테크닉 등으로 두뇌 회전을 필요로 하는 유산소 운동이다. 이런 움직임은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효과가 있으며 커플의 운동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동하는데 균형성을 향상 시켜주고 근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적합한 신체의 활동이다. 신체적인 움직임으로는 동작, 무게 중심, 이동, 점프, 회전, 연속, 정지 등 이러한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 진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무릎이나 발목 근육을 적절하게 단련시키는 관절의 노화와 몸의 운동능력 저하를 막아주고, 성인병이나 비만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춤을 출 때 바른 자세로 허리와 목을 피고 춤을 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세를 반듯하게 교정 할 수 있는 효과와 손끝 발끝까지 스트레칭을 하며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즉, 라틴댄스는 스포츠적인 성격을 띠면서 육체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신적 즐거움까지 추구해 행복감이 증진하는 춤이라 할 수 있다.

2. 라틴댄스의 대중적 특성과 가치

1) 대중적 특성

1980년대부터 댄스에 관한 영화들이 개봉되면서부터 대중들의 춤의 관심도가 증대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영화로 1987년 세계적 살사댄스 열풍을 주도한 <더티댄싱>, 맘보댄스 및 살사댄스 외에도 다양한 춤을 선보이는 <더티댄싱2>, 유혹적인 살사 댄스가 뿜어내는 열기와 라틴 밴드의 음악을 주무기로 한 프랑스의 ‘살사’, 라틴댄스를 소재로 다룬 ‘댄스 위드 미’등으로 알 수 있다. 영화개봉 이후로 대중화되면서 사교댄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류유경, 2012).

이후에는 TV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던 <댄싱 위드 더 스타>, <댄싱 9>,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외국오디션프로그램 <월드 오브 댄스>, 공연으로는 <번더 플로워> 등 대중들의 열기와 관심은 라틴댄스의 특성들이 대중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댄싱 위드 더 스타>는 미국의 텔레비전 시리즈 <댄싱 위드 더 스타>의 포맷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MBC에서 2011년 6월에 첫 방영을 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인사 연예인, 배우, 텔런트 분들과 프로페셔널 댄스스포츠 선수들의 만남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스타들의 열정과 보여주는 춤 경연 프로그램이다. 시즌1은 추석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지만 시즌1의 인기에 힘입어 무려 시즌 2,3까지 흥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각 분야의 스타들의 도전 정신을 전하며 동시간대 1위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이다(이미영, 2013.03.04.).

시즌3 초기 안방극장의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바로 ‘도전을 통한 힐링’을 앞세웠고 ‘댄싱스타3’ 제작진은 “영화 ‘여인의 향기’ 알파치노의 명대사 중

에 ‘스텝이 영키니까 탱고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대로 삶이 꼬이니까 인생인 것이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곳곳이 살아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스타들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식지 않는 중년의 열정을 보여준 오미희와 이종원, 척추장애에도 딸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자넷리(Jeanette Lee),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라는 희귀병에도 성실한 노력 끝에 준우승 자리에까지 오른 김경호 등 다른 시즌에 비해 유독 각자의 드라마가 강한 참가자들의 도전은,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잔잔한 울림을 선사하였고 페이는 무용학교출신이라는 유연성과 댄스그룹다운 안무습득속도, 뛰어난 무대 연출과 장악력을 내세우며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미스에이 페이는 프로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며 여기에 ‘나의 스토리’라는 주제를 통해 타국에서 일하는 어려움과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움을 솔직하게 보여주며 안방극장을 울컥하게 만들었다(이미영, 2012.04.30.).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도전을 하며 땀과 눈물로 완성한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며 스토리로 인한 감동뿐만 아니라 화려한 의상과 퍼포먼스를 겸비한 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댄싱 위드 더 스타>가 소리 없는 강세를 보인 이유일 것이다. 이어 “우리 프로그램은 힐링이 목표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아니다. 챌린지에 가깝다. 출연자들은 매회 탈락자가 아닌,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진정한 챔피언들이다”고 그들의 도전을 높이 평가했다(이미영, 2012.04.30.).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또 다른 점으로는 이제까지의 다른 MC들과는 전혀 다른 진행방식이다. 적극적으로 출연자들에 다가서며, 심사위원과 소통하고, 시청자를 대한다. 마치 한 편의 콩트처럼 그렇게 출연자와 심사위원, 시청자의 경계가 MC 이덕화로 인해 허물어지며 목숨 걸고 붙어야 하는 서바이벌

이 아니라 조금은 마음 편안하고 재밌게 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김윤석(2012.06.09.)은 <댄싱 위드 더 스타>를 보면서 성장과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열정을, 흘린 땀만큼이나 진한 환희를, 그 모든 순간을 시청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댄싱 위드 더 스타>와 같은 도전서바이벌이 갖는 가장 큰 미덕이며, 저들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 순간에 TV를 통해 지켜보는 시청자 자신마저 흐뭇한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댄싱 위드 더 스타>를 통해 라틴댄스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어떤 춤인지 전문적 지식이 없던 대중들에게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외국오디션 프로그램 ‘NBC월드오브댄스(WORLD OF DANCE)’는 아이키와 양사랑이 이끄는 댄스팀 ‘올레디’라는 팀으로 라틴댄스와 힙합댄스를 퓨전으로 하는 여성듀오로, ‘월드 오브 댄스 시즌3’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연을 본 제니퍼 로페즈는 “다양한 장르를 믹스했고 그게 너무 좋다. 라틴댄스도 있고 재즈도 있고 팝핀, 락킹도 있고 대단했다. 퓨전 스타일 춤에 뭔가 있다. 진짜 재밌게 잘 봤다”고 말하며 높은 점수인 90점을 주었고(김유표, 2020.10.18.), ‘올레디’ 팀은 전 세계의 퓨전댄스를 알리며 한국을 빛내주었고, 최종 베스트4에 들었다.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는 또 다른 퓨전댄스를 접목한 팀 라치카는 각 크루의 개성을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여야 하는 파이널무대 ‘컬러 오브 크루’ 미션에서 견제로 시작했지만 끝내 화합하게 되는 스토리를 워킹과 라틴댄스로 표현했다. 흥겨운 라틴댄스와 워킹의 퓨전댄스와 핑크와 골드로 화려하게 구성된 의상으로 라치카의 금빛 무대는 시청자들을 들썩거리게 만들었고, 이러한 라틴댄스의 매력이 점차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라틴댄스의 대한 관심과 열풍이 돌게 만들었다.

이처럼 대중예술로서 라틴댄스는 대중과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문화이며 대중들의 삶 안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예술로, 요즘의 현대인들은 참여문화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스포츠나 공연 등을 관람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경험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 화려한 장식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라틴댄스가 무대화 된 작품들은 공연예술이 학습되지 않은 대중들에게도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한다.

2) 대중적 가치

일반적으로 실용무용이라 함은 대략 스트리트 댄스재즈댄스, 힙합, 라틴댄스, 탭댄스, 뮤지컬댄스, 댄스스포츠, 벨리댄스, 줌바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며 춤의 장르적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모호하다.

‘무용이란 신체가 리드미컬하고 우아하게 공간 활동을 하면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독립적인 종합예술이다’라는 정의(김말복, 2013)는 무용의 본질인 실용성을 배제하고 예술성만을 강조하려 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과 문화생활, 일로 피로해진 심신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즐기는 활동으로 지향하며 다시 실용적인 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가를 보람차게 사용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교양을 높이며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레크리에이션(recreation)효과를 가진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중무용과 유의미한 성격을 지닌 ‘실용무용’의 개념은 실용무용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비형식적인 구조와 유행성을 가지는 춤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교육적 활동의 하나로 예술무용과의 차별성을 가진 대중적인 춤이며, 더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중예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이지혜, 2012).

김영란과 최경호(2010)는 실용무용의 개념 및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실용무용은 관람위주의 공연예술이 아니고 직접 움직여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용무용은 실제적인 효율성과 효용성이 있는 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실용무용은 용도, 명칭, 대상, 목적에 따라 분류 된다. 현대인들의 실용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성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셋째, 스포츠의 상품화처럼 실용무용 또한 상품화성이 높게 반영되고 있다. 즉, 실용무용은 연예계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며, 일반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실용무용은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한 현실적 목적과 현대 생활의 긴장에서 벗어나려는 현실 도피적 성향을 띄면서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생활무용은 자기실현을 위해 직접 참여하여 배우는 실천적 생활문화이며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인간 활동의 개념이며(김삼진, 1999), 양은심(1999)은 풍요로운 정서활동, 건강증진, 심미적 가치관의 추구를 위해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한 무용의 종류로 실용무용을 정의를 하였다. 이상의 문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용무용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연구문헌마다 각각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종합해보면 실용무용은 대중무용, 사회무용, 생활무용과 의미적 정의에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면서 혼용하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영하, 2015). 공통적인 개념으로의 실용무용은 비전문성, 참여성, 실용성, 대중성, 여가성의 특징을 가지며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목적과 욕구를 충족하는 무용임을 알 수 있다.

라틴댄스 또한 남녀노소 계급·세대·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실용무용이자 생활무용으로서 용이성과 효용성을 동시에 지니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활발한 문화 활동으로 사

회적 가치와 더불어 대중적 성향을 가진다고 정의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그동안의 실용무용, 사회무용, 그리고 생활무용은 예술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으로써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실용무용은 순수, 혹은 전통춤과 대비되는 일체의 춤의 형태로서,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예술성보다 오락성과 상업성, 그리고 일시적인 유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춤으로, 그 종류로는 크게 교육무용, 사교무용, 민족무용, 오락무용으로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예술무용 이외에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가장 친숙하게 만나는 춤의 유형인 영화나 텔레비전, 뮤지컬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추는 춤으로 스타일상 잡종, 혼혈 유형으로 재즈, 탭, 중족 무용의 요소들을 종합하고 있다(김말복, 1998). 라틴댄스는 서양으로부터 유입되었기에 대중적 문화로서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중예술로서의 가치는 아직까지도 인정되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실용무용의 특성을 보았을 때 라틴댄스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중무용, 여가활동으로 무용을 통한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강조한 생활무용, 사회집단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체 활동을 하며 함께 춤을 추는 의미를 내포한 사회무용으로 즉흥성은 물론 예술성까지 갖춘 대중적 요소가 많은 춤으로 대중예술로서의 대중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정의할 수 있으며 대중예술로서 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발전을 위한 노력과 가치가 있는 대중성 있는 춤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중예술로서의 발전방안

대중예술로서의 발전방안을 알아보기에 앞서 문화관광부 문화 향수 실태 조사에서 실시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직접적인 참여 의지뿐만 아니라 활동도 매년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대중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로 인해 문화예술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나 무용 공연분야는 미미한 증감률 또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다른 예술분야 보다 무용분야의 성과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무용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닌 소비자로 전달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과정들과 시스템의 미비에 의한 경우가 크기 때문이다.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현실에 부딪히며 실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아직까지 정통성에 머물러있는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단위: %)

문화예술행사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16년 대비 증감률(%p)
전체	69.6	71.3	78.3	81.5	3.2
문학행사	6.1	6.2	5.8	8.9	3.1
미술전시회	10.2	10.6	12.8	15.3	2.5
서양음악	4.8	4.9	4.5	5.5	1.0
전통예술	6.5	5.7	7.6	9.3	1.7
연극	11.8	12.6	13.0	14.4	1.4
뮤지컬	11.5	11.5	10.2	13.0	2.8
무용	2.0	2.4	1.3	1.8	0.5
영화	64.4	65.8	73.3	75.8	2.5
대중음악/연예	13.5	14.4	14.6	21.1	6.5

※ 2016년 조사에만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이 추가됨(‘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포함 관람률 79.3%)

문화예술행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32.8%가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28.0%)’,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13.3%)’,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12.5%)’ 순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그림 7. 문화예술행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 대중예술은 누구나 다가가기 쉽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중화의 핵심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대중의 의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에는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즉, 현대의 물질적이고 외모 지향적인 소비성향 등의 유행이 개인에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벼움은 전통이 되지 못하며 인간의 성숙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관객이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그 허전함의 충족을 외모나 물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나 그리움, 슬픔, 기쁨, 희망의 몸짓으로 표현하는 무용공연예술 등으로 채워야 함을 깨닫게 도와야 한다(김희재, 2004). 문화 환경의 변화 추이에 큰 반응을 하는 문화예술이라

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 문화, 역사와 관련된 예술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예술론, 미학, 철학에 관한 이론 교과목이 편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의식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예술교육을 뿐만 아니라 예술의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론적인 교육은 관심도 이해도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하며 경험해보지 못한 간접체험의 형태로 의식변화를 유도해야 예술에 관심을 갖고 이해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라틴댄스가 사교댄스에서 대중댄스로 점차적으로 변화한 것처럼 대중들의 의식변화는 많은 대중화의 변화를 줄 것이라 사료된다.

두 번째, 예술은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가까워서 즐기고 느껴야 하지만 대부분의 행사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볼 수 있는 큰 어려움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큰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투어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굳이 큰 극장에서 해야 하는 공연이 아니라면 적은 비용이 소요 할 수 있고, 일정보호에 어려움이 없는 회관, 아트센터 등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며 지역민들을 위한 대중무용예술행사나 공연들을 문화공간에서 자주 개최해야 한다. 양질의 작품을 적은 비용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한다. 공연장뿐만 아니라 야외나 거리에서 함께 무용을 느낄 수 있는 기회마련이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멀리 가지 않아도 대중들은 가까이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되고,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화에 기여하는 발전 방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공연이나 작품을 기획을 할 때 다른 대중예술장르와는 다르게 분업화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이 전문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획을 하는 사람, 창작을 하는 사람, 무대를 디자인하는 사람, 광고마케팅을 하는 사람 등 분담되어 전문성 있게 기획을 해야 대중들이 작품성을 높게

평가하고 찾을 것이다. 분업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객 확보와 입장수입을 확대함으로 제작비를 회수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과 대중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는 게 필요하다(이종원, 2007). 기획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업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네 번째, 예전에 비해 다양한 미디어가 많이 생기면서 공연예술 활동 또는 실용무용을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여 보여주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들이 기획 및 마케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니버설 발레단은 트위터를 통해 발레단이나 공연에 관한 간단한 공지 외에도 무용수들의 일상과 그들의 트위터 활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준다. 또한 트위터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을 링크하고 있다. 유니버설발레단은 페이스북과 연동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주로 공연에 관련된 영상이 업로드 된다. 또한 유니버설 발레단은 안드로이드 기반 유니버설 발레단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유저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유니버설 발레단의 배경화면이 핸드폰에 설치되고, 이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된다. 유니버설 발레단은 아이튠즈를 기반으로 한 「발레 심청」 홍보 이벤트 게임 「다른 그림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숙박권과 발레 티켓을 주던 이벤트 등을 많은 이벤트들을 하며(임학순, 2011), 고급예술로 생각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편한 모습들로 일상을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벤트의 혜택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규칙적인 소통을 유지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대중들에게 신선함과 궁금증을 유발하여 대중성에 초점을 두고 미디어를 통해 보여준다면, 이처럼 대중들에

게 낮설지 않고,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인스타그램(Instagram)의 경우에는 페이스북(Facebook)보다 즉각적인 이미지 활용이 훨씬 효과적이고,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이미지의 결합과 감성적인 글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단순히 행사 소개와 공지를 SNS를 이용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과 활용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및 팔로워를 통해 교감할 수 있는 춤의 관련소식이나, 창작 무용인들이 제작한 자체 UCC와 같은 비디오 클립을 모집, 활용하거나 각종 SNS 이벤트를 개발한다면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많은 조회수로 대중들에게 퍼지며 라틴댄스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한쪽의 일 방향적인 정보전달보다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로 더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공감의 정보, 현장성이 내재된 영상 정보, 신빙성이 확보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손신형, 2019). 이러한 지식정보에는 공연상세 안내와 이벤트, 공연프로그램 정보 등 공식적인 정보 외에도 공연연습과정에서 생긴 이야기, 안무가 이야기, 소소한 일상적인 대화, 공연뒷이야기 등 다양한 유형의 비공식정보가 포함된다. 소셜 미디어는 창작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의 상호소통(interactivity)을 바탕으로 마케팅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임학순, 2011).

또한 <댄싱 위드 더 스타>, <댄싱9>, <스트릿 우먼 파이터>와 같은 무용 관련된 TV 프로그램들이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중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관객개발의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무용공연이 여타의 다른 공연예술 장르보다도 생활화된 공연예술로서 대중화될 여지가 크며, 무용장르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발견하였다(이정확 · 이용건 · 이지혜, 2012). 전통예술이 갖고 있는 예술성이 시너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무용공연을 단순히 안무가와 무용수의 예술적 표현으로서만 기획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과 실행으로 옮긴다면, 점진적인 대중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손신형, 2019).

다섯 번째, 무용공연이나, 대회의 관람요금의 경우, 특별한 티켓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 개의 작품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패키지 티켓이나, 축제와 관련된 특별한 이벤트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와 할인정책 등은 관객의 높은 참여도와 흥미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패키지 구매 관객들의 경우에는 열성적인 관객이므로, 이들의 공연이나 축제 마케팅에 주요 타겟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단순히 불특정 다수들에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핵심 고객을 통해 확산시키는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마케팅 방법으로 단순히 티켓을 많이 파는 것을 넘어 타겟 관객을 찾을 수 있는 특별 티켓정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손신형, 2019). 공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숙지하지 않으면 예약하기 어렵고, 공연에 대한 설명을 따로 검색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예약을 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공연에 대한 지식 정보와 예약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넷예약의 편리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약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종합적으로 관리자들이 관리하게 된다면 마케팅적으로 많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융·복합이란 “융합”과 “복합”이 합성된 것으로 여러 성과와 기술이 하나로 합쳐져 융합되어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하며, 둘 이상의 효과라던가 성능이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라틴댄스와 다른 장르의 융합으로서 남들과는 다르게 대중들에게 색다르게 다가갈 대중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는 안무라는 뜻인데, 음악의 다양한 소리, 질감, 리듬, 멜로디 등에 맞추어 노래에 가장 들어맞는 춤이 코레오이며, 특정 음악에 맞추어 자신의 스타일로 안무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김

다희, 2021). 주로 음악의 박자를 쪼개서 동작들을 넣는 것을 특징으로 한, 음악의 가사나 비트에 맞추어서 동작을 하여 표현하는 춤이다. 요즘 인기를 몰고 있는 아이키(강혜인)는 SNS를 통해 라틴 코레오(Latin Choreo)를 보여주며 1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라틴댄스의 정통성만 고집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장르와 분야들을 새롭게 창의성 있게 시도를 한다면 대중들에게 라틴댄스에 대해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대중예술로서 이러한 여러 방안 마련이 구축되고 발전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앞으로 라틴댄스는 더 나은 발전과 새로운 무용공연 또는 실용 무용에서 더 나아가 대중무용으로서 문화가 이루어지고 관객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객과 함께 참여하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대중들과 함께 즐기는 춤으로 인식되는 대중예술무용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무용예술은 문화산업의 흐름을 타고 대중예술로서 대중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중으로부터 발전하여 대량매체들의 영향으로 음악과 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있는 라틴댄스는 대중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큰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라틴댄스가 지닌 유희성, 참여성, 사회성이란 강점은 라틴댄스가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어렵게 인식되어 일반적인 참여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 연구에서는 라틴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분야별로 대중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색하고 라틴댄스의 가치를 크게 사회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교육적 가치, 신체적 가치, 그리고 대중예술로서의 대중적 가치로 나누어 연구하여 라틴댄스의 내재된 대중성을 탐색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로의 대중성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향후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5가지의 가치로 나누어 탐색한 결과 사회문화적 가치로 탐색한 라틴댄스의 사회문화적 가치로는 상호간의 배려와 호흡, 의사소통, 소속감, 리더쉽, 인내, 협동심, 책임감, 예의 등 질서와 타인에 대한 인격존중 등의 가치 들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춤 문화이고, 상호간의 호흡과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춤으로 요즘 시대에 필요한 매너와 사회성을 함양한다. 상호간의 호흡과 예의범절을 중시하며 요즘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서로를 존중하는 매너와 사회성을 함양 할 수 있으며 라틴댄스가 지닌 유희성, 참여성, 사회성이란 강점은 라틴댄스가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

력이 되었다.

예술적 가치로는 움직임과 함께 풍부한 감정 표현과 표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표현 예술로 다양한 형식과 연출로 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깊은 감흥을 전달한다. 고도의 예술적 기술과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성을 공유하고 있는 데 있으며, 음악의 리듬감과 함께 율동하는 음악성, 파트너와의 호흡을 맞추는 일치성, 동작의 움직임에 연결과 표현의 창의성,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공간감각성,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한 의상 등은 보는 사람에게도 라틴댄스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이다.

교육적 가치로는 협동력과 자기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성을 발휘 및 개발 시켜주며, 작품을 직접 창작함으로써 창조적인 사고와 행동을 유발시켜 표현의 탐구력과 상상력을 증진 키워준다. 심신안정과 사회의 건강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며, 인간이 천부적으로 지닌 예술적인 소질을 의도적으로 신체활동을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표현적,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을 육성시키는 교육적 특성으로 발전된다.

신체적 가치로는 라틴댄스는 예술과 스포츠의 혼합으로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유산소와 근력활동으로 운동효과도 뛰어나다. 단순한 근력운동과는 달리 방향 감각 및 음악성과 과학적인 테크닉 등 두뇌 회전을 필요로 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장점이 있으며 커플의 공간 사이의 운동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동하는데 균형성을 향상 시키는데 적합한 신체의 활동이다.

대중예술로서 대중적 가치로는 라틴댄스는 실용성, 여가성, 대중성, 비전문성, 참여성의 특징을 가지며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욕구와 목적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희성, 개인의지로 경험할 수 있는 참여성, 그리고 사람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회성이라는 대중적 특징을 지닌다. 유아

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생활동이며 일상생활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한다. TV프로그램 및 SNS를 통해서도 인기를 끌며 대중들에게도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게 되면서 즉흥성은 물론 예술성까지 갖춘 대중적 요소가 많은 춤으로 대중예술로서의 대중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을 바탕으로 대중예술로서의 발전방안을 알아보기에 앞서 ‘문화관광부 문화 향수 실태조사’에서 실시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활동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대중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로 인해 문화예술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나 무용 공연분야는 미미한 증감률 또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라틴댄스의 내재된 사회문화적, 예술적, 교육적, 신체적 가치들과 대중예술로서의 대중적 가치고찰을 통해 라틴댄스의 대중성을 알아보았으며 라틴댄스의 지속가능한 대중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먼저 대중의 의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문화, 사회, 역사와 관련된 이론교과목이 편성되어야 하며 예술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미학, 철학, 예술론에 관한 이론 교과도 포함하며, 직접 체험을 하며 경험해보지 못한 간접체험의 형태로 의식변화를 유도해야 예술에 관심을 갖고 이해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지역민들을 위한 대중무용예술행사나 공연들을 문화공간에서 자주 개최해야 한다. 양질의 작품을 적은 비용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한다. 공연장뿐만 아니라 야외나 거리에서 함께 무용을 느낄 수 있는 기회마련이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기획을 하는 사람, 창작을 하는 사람, 무대를 디자인 하는 사람, 광고마케팅을 하는 사람 등 전문성 있게 분담하며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네 번째, 순수무용과 대중무용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의 대중들이 향유하는 대중예술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무용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산업이나 산업화를 위한 무용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이러한 콘텐츠는 한쪽의 일 방향 정보전달보다는 양쪽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공연안내와 이벤트 정도, 단체정보, 공연프로그램 정보 등 공식적인 정보 외에도 공연연습과정에서 생긴 이야기, 안무가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정보 등 SNS나 TV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한다.

다섯 번째, 여러 작품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패키지 티켓이나, 작품이나 축제와 관련된 특별한 이벤트와 이와 관련된 할인정책 등은 관객의 높은 참여도와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

여섯 번째, 라틴댄스와 다른 장르의 융합으로서 색다르게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라틴댄스와 힙합, 라틴코레오, 방송댄스 등을 콜라보 하며 정통성만 고집 하는 것이 아닌 새롭고 창의성 있게 시도를 한다면 대중들에게 라틴댄스에 대해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라틴댄스의 가치들을 살펴봄으로써 라틴댄스의 대중성을 연구 하였으며 현 시대의 대중들에게 대중예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여 춤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대중에게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라틴댄스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라틴댄스의 또 다른 가치들을 찾아내

며 대중예술성의 관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라틴댄스 대중성에 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대중 예술로서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보고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자는 라틴댄스의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5가지로 국한하였으므로 라틴댄스의 다른 가치들을 통해서 대중성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중적으로 라틴댄스가 자리 잡힌 만큼 스포츠와 기술적인 면만이 아닌 라틴댄스를 대중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중적 요소와 다양한 방면의 가치를 찾는 연구가 필요하며 라틴댄스의 대중적 활성화 방안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남임(2009). 공연예술 관람객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에 관한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 대학원.
- 고선예(2012). 중년 남,녀 리듬댄스 참여 정도가 사회심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권혁필(2021). K-POP의 대중화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셜 커뮤니케이션 활동간의 연관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 권혜원(2010). 예술영화와 대중영화에 대한 인지적 경계 인식 비교 : 온라인 영화 동호회 회원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다희(2021). 스트릿 댄스 분야 유튜브 활동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 김말복(2013). 무용예술론 : 표현과 그 의미. 서울 : 금광
- 김문경(2010). LMA에 의한 라틴댄스의 움직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문경, 김미숙(2012). 라반의 에포트-쉐입 분석을 통한 파소도블레의 움직임 특질.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0(3) 343-359.
- 김문환 역(2013) / 우에노 나오테루. 미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미정(2014).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댄싱 9>의 분석을 통한 무용의 대중화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민수, 한화성, 김건(2016). 2000년대 한국 대중영화를 통해 바라본 사회·정치적 담론과 미디어적 현상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2, 125-150.
- 김삼진(1999). 성인여성의 생활무용참가와 사회연결망 및 사회적 지지와의

-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소라(2018). 라틴 댄스(latin dance)의 안무방식에 관한 미학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김소연(2009). 여성 댄스스포츠 참가자의 참여수준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수정(2004). 여가만족도 향상을 위한 댄스스포츠 참여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 김영란(2009). 한국 실용무용의 발전과 현황분석에 따른 개념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김영란, 최경호(2010). 무용의 발전과정과 현황조사를 통한 실용무용 개념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지, 4(4), 1-8.
- 김영미(2000). 무용참가와 자아실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영화(2010). 댄스스포츠 참여정도가 신체적 자기개념과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창남(2020). 대중문화의 이해. 경기: 한울아카데미
- 김태원(2004). 예술 춤 위기와 전망. 서울: 현대미학사
- 김희재(2004). 정책 : 무용공연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 한국예술교육학회. 학술대회.
- 류유경(2012). 국내 댄스스포츠의 현황과 발전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문희경(2013).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참여결정에 따른 활동만족이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미국무용협회(1996). (김향금, 현희정 역). 美國舞蹈教育指針. 서울 : 寶晉齋
- 박봄(2012). 한국 대중음악에 나타난 마케팅홍보(MPR)의 풀(Pull)전략변

- 화 양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성봉(1994). **대중예술의 이론들 : 대중예술 비평을 위하여**. 서울: 동연.
- 박영하(2015). 실용무용의 흐름과 경향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35-52(18쪽)
- 박인숙(1999). 숙련도가 리듬운동의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산업과학연구 8권0호** 1-9(9pages)
- 배수을(2013). 무용 대중화의 관점에서 본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프로그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의- <댄싱 9>을 중심으로 -. **무용예술학연구**, 45(6), 53-79.
- 백경진, 김영인(2008). 탱고 의상의 디자인 특성과 현대 패션에 적용된 사례.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58권 제2호** 149 - 161 (13 pages)
- 백기수(1972). 미학의 기초개념 (基礎概念) (2) : 미 (美) 및 예술 (藝術)의 의미에 관한 비교미학적 고색 (考索). **한국미학회지**
- 백순기(2006). 댄스스포츠 참가자의 운동중독성향과 운동지속의도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2), 127-137.
- 서인숙(2005). **무용의 교육적 가치가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손신형(2019). 마케팅믹스 7P 전략에 의한 무용축제 대중화 방안 연구: 제39회 서울무용제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53, 137-155.
- 손윤숙, 나선영 역(1995) / Elizabeth Sawyer. **무용음악**. 서울 : 금광.
- 송혜리(2019). **댄스스포츠(TANGO VARIATIONS ROUTINE) 운동이 65세 이상 노인의 균형능력 및 근 기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국원(2005). 대중예술의 통합적 비평을 위한 접근.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10, 111-147.
- 양은심(1999). **주부의 생활무용 참가와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간 인과분**

- 석.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양야리(2016).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의 디자인 특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염영동(2021). 문화산업의 대중화를 위한 무용공연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우명희(2008). 라틴댄스에 나타난 춤 특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덕경(2000). 한국 창작춤을 위한 몸풀기와 몸만들기의 실제. **한국무용연구**, 18, 21-37.
- 윤정은(2004). 대학무용 전공자의 무대공연 경험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경숙(2011). 댄스스포츠의 미학적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 이경숙(2013). 춤의 상징(4) - 룸바를 중심으로 -.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1(3), 227-243.
- 이경숙, 반주은(2012). 파소도블레(Paso doble)에 대한 춤의 상징. **한국스포츠학회**, 10(2), 267-275.
- 이경숙, 유현미(2012). 춤의 상징 2: 삼바(Samba)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학회지**, 10(4), 241-250.
- 이경숙, 이정호(2015). 춤의상징(6)-자이브(jive)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1, 395-404.
- 이경숙, 임일혁(2008). 댄스스포츠의 미학적 탐색 : 라틴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6(4). 339-364.
- 이순원(2008). **Dance Sports**. 서울: 금광미디어.
- 이영신(2020). 지역예술과 정부지원 간 관계연구 : 대전광역시 공연예술을

-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이용탄(2002). **댄스스포츠 현황 및 발전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이인권(2004). **공연예술의 무대기획**. 서울: 어드북스.
- 이정학, 이용건, 이지혜(2012). 무용공연장 마케팅믹스 요인이 공연관람객만족과 재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1), 279-289.
- 이종원(2007). 무용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1, 241-258.
- 이지혜(2012). **대중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실용무용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채원(2011). **번 더 플로어(Burn The Floor)에 나타난 라틴댄스의 대중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재숙(2002). **댄스스포츠 참여가 자아개념과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임학순(2011). 무용공연예술단체의 디지털미디어 기반 마케팅 실태와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18, 95-119.
- 장현정(2010). **노인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건강상태 지각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미송(2004). **댄스스포츠 종목별 운동 강도 및 장기간의 수련이 유산소성 운동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정연화(2003). **라틴댄스 (Latin Dance)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정혜윤(2020). **무용 대중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방안 연구: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정진수(2002). **대중예술의 이해**. 서울: 집문당.

- 정희진(2016).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성취목표성향이 운동가치 인식 및 운동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조규청(2001). **스포츠예술론**. 서울: 흥경.
- 조성재(2010). **라틴음악이 한국대중음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문화예술 대학원.
- 조수정(2006). **중년의 댄스스포츠 참여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재귀(2021). **대중문화예술분야 청소년 진로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대중음악 가수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 한수아(2000). **미국재즈댄스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본 예술성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한혜주(2020). **무용공연 대중화를 통한 문화향유권 활성화 방안 : 한국무용 공연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 황세란(2009). **영상매체를 통한 무용예술의 대중화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승희(2003). **댄스스포츠 참여자들의 여가만족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 Shirley Ayme(1999). **LATIN AMERICAN AT ITS BEST - RUMBA BY SHIRLEY AYME**. IDTA.
- 강하루(2021.10.27.). **'스우파' 최종 우승=홀리뱅...2위 흑·3위 라치카·4위 코카 엔버터 “韓 멋진 댄서들”**. 뉴스인사이드.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112>

- 김유표(2020.10.18.). ‘올레디’ 아이키, 과거 댄스 오디션 극찬 재조명 (영상).
엔터.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81860>
- 유경선(2021.11.24.). **BTS, 2년 연속 그래미상 ‘베스트그룹’ 후보에…본상 후보에는 못 올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111241144001>
- 유승목(2022.04.20.). **BTS 美공연 수익 400억…“韓서 이렇게 열리면 경제효과 최대12조”.**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012224684781>
- 이미영, 정소희(2012.04.30). ‘댄싱스타’ PD “착한 서바이벌 지향…감동 드라마 쓰겠다”. 조이 24. <https://www.joynews24.com/view/654068>
- 이미영, 최규한(2013.03.04). 힐링 넘쳐나는 안방, 댄스도 힐링이 될까요. 조이 24. <https://www.inews24.com/view/727957>
- 이혜운(2021.11.22.). “**BTS, 아시아 최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 3관왕 품었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2021/11/22/TPAD5VRL5RCRZFLCZKVLDO23M/>.

ABSTRACT

A Study on the Value of Dance Sports and Approach for Popularization as a Popular Art

Lee su hyun

Department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Performing Ar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University

The industry of pop culture and arts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 socially and economically. And also,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the fruitful life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Likewise, the dance field has attempted several approaches to recognise social circumstances and create cultural values. Although the dance art is definitively positioned in cultural industry, its popularization is still important issue i

n this field.

The popularization of dance means the phenomenon which people are more familiar to dance by inducing interest through enhancing the interaction. Latin dance has utilized TV show and collaborated with other public art to narrow the gap to people. These attempts make significant interest of people to Latin dance, which is effective approach to increase the popularity of Latin dance. In spite of many studies and attempts, the popularity of dance art is still not satisfied compared to other culture and art field.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Latin dance and popular art were explored, and the value of them was divided into socio-cultural value, artistic value, educational value, physical value, and public value as integrated all these values. Consequently,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the socio-cultural values of Latin dance include mutual consideration and partnership, communication, sense of belonging, leadership, patience, cooperation,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other. It is a Latin dance that anyone can enjoy regardless of age and gender. People also obtained the manners and sociality, which is required in modern social life, through Latin dance.

Second, as an artistic value, it is a spatial movement art that creates beautiful lines and spacial beauty of the body by connection between various movements and techniques in accordance with music and rhythms.

Third, the Latin dance is valuable as educational activity that can express emotionally aesthetic value by the expressing the body to the music. This activity is helpful to develop creativity centerring on cooperation and

d self-expression, and promotes the exploration and imagination of expression by inducing creative thinking and behavior by creating work directly.

Fourth, Latin dance, which is a sport genre that combines dance and sports, is suitable for developing equilibrium in aspect of kinematics. It is helpful to develop endurance, muscle strength, and flexibility through large muscle activities. In addition, Latin dance significantly improves cardiopulmonary functions through a relatively fast rhythmical movement.

Finally, Latin dance has a value as popular art. Latin dance makes playfulfulness, participation of self expression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at value harmony between people, as well as attracting and popularity with colorful costumes, cheerful music, flashy movements, and unusual performances, and public interest in Latin dance through TV show and SNS. By the exploring intrinsic values of Latin dance in several aspect, the various values of Latin dance as popular culture and art were discovered, and meaningful approaches for inducing the popularization and development potential were suggested.